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의 사회참여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을 중심으로

비정부기구학전공

김주현

2019년 2월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의 사회참여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을 중심으로

비정부기구학전공

김주현

2019년 2월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의 사회참여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동 춘

이 논문을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2월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비정부기구학전공

김 주 현

김주현의 석사 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9년 2월

심사위원장 : 이종구 (인)

심사위원 : 박경태 (인)

심사위원 : 김동춘 (인)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국 문 초 록

최근 약 10년 간 한국 가톨릭교회는 1987년 6월 항쟁 이전 민주화 운동 시기와 비슷하게 진보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다시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 시기는 사제들과 함께 특히 여성 수도자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는 민주화 운동 시기 이후 진보적 활동을 펼쳤던 평신도 단체들이 보수화 되었고 진보적 평신도들이 시민사회 진영으로의 이탈하여 최근의 이들의 활동이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이하 장상연합회)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 수도회와 수도자들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들이 기존의 기능적 역할에서 '예언자적 역할'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JPIC(Justice·Peace·Integrity of Creation) 활동의 확대' 즉 '사회참여의 확대'가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여성 수도자들의 '예언자적 역할'로의 전환은 수도자의 본질적 사명은 예언자적 역할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배경과 동기들은 다음과 같다. 가톨릭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고 사회교리를 통해 사회참여에 관한 종교적 가치와 규범을 제공하였다. 특히 한국 가톨릭교회는 간추린 사회교리의 번역과 사회교리 주간의 제정, 각 교구의 사회교리 학교 개설을 통해 사회교리의 대중화에 힘 쏟았다. 카리스마적인 영적 지도자의 예언자적 역할은 사회와 교회 안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과 강우일 주교는 대사회적 발언과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한국 가톨릭교회와 여성 수도자들이 사회참여를 촉진하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경우 특히 세월호 사건에 대한 관심 및 한국방문 중 유가족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모습은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리고 강우일 주교는 제주 교구장으로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에 지역주민들과 연대하였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주 4.3사건의 아픔과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함을 알렸다. 1990년 서울에서 JPIC 세계대회가 개최되면서 초교파적인 그리스도교 사회운동 즉 JPIC가 가톨릭교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가톨릭교회 내 기존의 정의·평화 운동은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더해 '정의·평화·생태'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었다. 그러나 JPIC 운동은 최근에서야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들이 JPIC의 이름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전개하면서 활성화되었다.

1980년 중반 이후 한국 가톨릭교회는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호감도와 사회적 공신력이 상승하여 입교자가 급증하고 교세가 확장되었다. 이 시기 여성수도회의 입회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많은 수도자들을 교회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파견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여성 수도자회에는 성소자가 급감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수도회 존립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한국의 여성수도회는 한국 가톨릭교회의 양적 팽창시기에 교회의 요청에 따라 회원들을 파견하였고 여성 수도자들은 사제와 평신도 중간에 위치하면서 기능적이고 중간관리자, 사제의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사제 숫자의 증가와 함께 평신도들이 성장함에 따라 이들이 여성 수도자들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어 여성 수도자들의 위치와 역할은 모호해졌고 역할 재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교회 내에서는 교계제도를 바탕으로 한 사제 중심의 조직 구조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교회 내 불평등 문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여성 수도자의 역할과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교회 차원에서 여성 수도자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장상연합회와 각 수도회는 쇄신과 식별 작업을 통해 기존의 사도직에 대해 재평가를 하였고 여성 수도자를 가장 필요로 하

고 수도회의 카리스마를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도직을 개발하게 되었다.

여성 수도자들의 예언자적 역할 전환의 인식과 함께 한국의 시대 상황 안에서 한국 여성 수도자들은 이 시대의 사도직은 사회참여 즉 JPIC 활동임을 자각하였다. 2008년 이후의 약 10년간, 한국 사회는 심각한 정치적·사회적 문제가 연속적으로 등장하였고 시민사회 진영의 문제제기와 이에 대응하는 정권의 탄압과 폭력이 심해졌다. 여성 수도자의 JPIC 활동의 확대는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이는 수도회간 네트워크 강화와 각 수도회 내 조직화의 결과였다.

이 시기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종교계 특히 장상연합회에 연대 요청이 급증하였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생명평화분과 내에 전담자를 배치하였다. 이 전담자를 중심으로 가톨릭 내부의 사회참여 활동 단체와 연대하고 사회문제에 공동 대응하였다. 각 수도회 간 네트워크를 만들어 긴급한 연대 요청에 발 빠르게 대응하였고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였다. 또한 장상연합회 총회 결정에 따라 각 수도회는 JPIC 담당자를 선정하였고 JPIC 모임을 결성하여 활성화하였으며 여성 수도회와 수도자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었다.

특히,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은 수도회 간 네트워크 형성과 수도회 내 JPIC 조직화의 결과이다. 생명평화분과 전담자는 연대하고자 하는 여성 수도자를 모집하여 보내고 여성 수도자들이 강정 마을 내에서 머무르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항공비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여성 수도자들이 머무를 숙소를 제공하고 강정 마을 내 가톨릭 팀과 상의하고 결정하여 마을 내에서 머무르면서 연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주요어: 예언자적 역할, 사회참여, JPIC, 프란치스코 교황, 강우일 주교, 생명평화분과,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대상 및 분석틀	6
1)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6
(1) 연구 대상	6
(2) 연구 방법	7
2) 연구의 분석틀	9
II. 이론적 배경	11
1. 종교의 기능	11
2. 종교의 예언자적 기능과 카리스마	13
1) 예언자와 종교의 예언자적 기능	13
2) 카리스마(charisma)	14
3. 사회참여의 정의	15
4. 수도생활의 이해	16
1) 복음적 권고	17
2) 세 개의 카리스마 : 창설자·창립·수도회 카리스마	18
3) 수도생활의 본질적 사명의 세 가지 특성	19
4) 수도생활의 쇄신 기준	20
III. 수도자의 예언자적 역할 촉진	20
1. 종교적 가치의 변화	21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	21

2) 사회교리	23
(1) 사회교리	23
(2) 사회교리 기본원리	24
3) 사회교리의 강화 : 사회교리 대중화	26
(1) ‘간추린 사회교리’의 번역	26
(2) 사회교리주간 선포	26
(3) 사회교리학교 개설	27
2. 리더십의 변화 : 진보적 리더의 출현	28
1) 프란치스코 교황	29
(1) 복음의 기쁨 (Evangell Gaudium)	29
(2) 찬미받으소서 (Laudata Si)	30
(3)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	31
2) 강우일 주교	33
3. 그리스도교 사회운동의 등장: JPIC	34
IV. 수도자의 예언자적 역할 인식과 전환	36
1. 여성수도자의 조직 내 위기	36
1) 수도회 내 위기 : 성소자 감소와 고령화	37
(1) 성소자의 감소	37
(2) 수도자의 고령화	38
2) 사도직 내 위기 : 수도자로서의 고유한 역할 수행의 제약	39
(1) 기능적 역할에의 동원	40
(2) 주변화	42
2. 수도자 역할 재고의 필요성과 역할 전환의 인식	47
1) 여성 수도자 문제를 다룬 교회문헌	48

2) 여성 수도자 문제를 다룬 수도회와 장상연합회 문헌	49
3) 2015년 ‘봉헌생활의 해’ 기념 조사에서 사회참여 관련 내용	51

V. 여성 수도자의 사회참여 : JPIC 활동 확대	53
1. 국내 정치 환경의 변화 : 보수·권위주의 정권 시기	54
2. 장상연합회의 조직적 특성	55
1) 기구 조직	56
2) 생명평화분과	58
(1) 생명평화분과의 설립과 변천	58
(2) 생명평화분과 내 소위원회	59
3. 생명평화분과 조직력의 성장과 확장	61
1) 전담자의 배치	61
2) 외부와의 연대 및 네트워크 강화	63
3) 정보공유	69
4) 예산지원	71
VI. 여성 수도자들의 JPIC 활동 :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	71
1. 제주의 역사·환경적 특색과 ‘제주평화의 섬’ 지정	72
2. 강정마을과 자연환경	73
3.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 저항	74
1) 강정 해군기지 유치와 건설과정	74
2) 강정 해군기지 관련 주요 사항	77
4. 강정해군기지 건설 반대 가톨릭의 연대활동	79
1) 가톨릭의 연대활동	79
2)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사회회칙 중 평화, 개발, 자연환경 분야	83

3) 강우일 주교와 제주평화의 섬 실현 천주교 연대 입장	84
5. 여성 수도자들의 JPIC 활동	86
1) 전담자 배치 : 강정 마을 내 연대활동의 조직화	86
2) 외부연대 및 네트워크 강화	89
3) 정보공유	91
4) 예산지원 : 항공료 지원	92
VI. 요약 및 결론	95
참고문헌	102
ABSTRACT	116

표 목 차

<표 1> 인터뷰 대상자	8
<표 2> 각 교구 사회교리 학교 개설과 지속여부	27
<표 3> 초기 양성자의 수 변화 추이	38
<표 4> 활동 여자수도회 연령 분포	39
<표 5>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의 사도직 종사자 현황	40
<표 6> 여성 수도자 문제를 다룬 교회 문헌	48
<표 7> 여성 수도자 문제를 다룬 수도회와 장상연합회 문헌	49
<표 8>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위원 수	68
<표 9> 강정 해군기지 관련 주요 사항	77
<표 10> 강정 해군기지 건설반대 가톨릭교회 주요 활동 사항	81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10
[그림 2] 종교의 세계관의 패러다임 전환과 교회 위상의 변화	22
[그림 3] 세월호 사건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	32
[그림 4] 사회문제 참여 여부	51
[그림 5] 사회문제 참여 이유	52
[그림 6] 가장 관심 갖는 사회문제	52
[그림 7] 수도자로서 사회현실 문제에 참여하는 적절한 방법	53
[그림 8] 사회문제 식별 방법	53
[그림 9] 한국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기구 조직표	5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약 10년의 한국 가톨릭교회는 1987년 6월 항쟁 이전 민주화 운동 시기와 비슷하게 사회참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민주화 운동 시기에 한국 가톨릭교회는 지식인들과 함께 한국 사회 전면에 부각되어 정권의 폭압에 대항하였고 불의를 고발하였다. 그리고 6월 항쟁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시민사회 진영이 성장하였고 그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최근 약 10년, 한국 가톨릭교회에서는 ‘진보적인 사회참여 활동’이 재점화¹⁾ 되었고 사제들과 함께 특히 여성 수도자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종교의 사회참여 활동은 시민사회 영역에 속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민사회와는 달리 종교라는 요소가 특별히 작동하게 된다. 이 특수성은 종교 조직과 종교의 교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종교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종교 진영은 시민사회 보다 교리와 신앙을 중심으로 한 단단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가톨릭교회는 세계적인 중앙집권적인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다. 과거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정권도 시민사회의 저항에 대한 탄압을 행사하였지만 종교 진영의 저항에 부담감을 가진 경향이 있어서 종교진영은 시민단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정권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

특히 가톨릭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며 삶으로써 예수

1)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가톨릭교회의 사회운동은 민주화 운동 시기와 달리 생명과 환경 분야의 보수적 사회참여 활동이 중심이 되었다. 여기에서 ‘재점화’는 민주화 운동 시기의 진보적 사회운동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상 안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종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종교인과 신자들은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 안에서 윤리·도덕적 역할 수행과 함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이 요구된다. 이런 일련의 이유로 종교의 가치와 규범은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사회참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톨릭교회 구성원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정당화하는 가톨릭교회의 사상적 배경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톨릭교회는 근·현대 약 100년 동안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강조하였고 교회는 현실 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가르침을 교황들의 회칙²⁾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가르침은 ‘사회교리³⁾’로 체계화되었다. 가톨릭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교회는 세상 안에서 군림하지 않고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세상 안에서 예언자적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가톨릭교회 구성원 모두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최근 한국 가톨릭교회의 사회참여는 여성 수도회와 수도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졌고 본 연구는 이에 주목하여 이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톨릭교회의 수도회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세상과 교회의 필요에 응답한 특별한 카리스마를 지닌 창설자로부터 시작되었고 창설자와 그 제자들이 모여 수도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수도자들은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고 교회와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시대의 요청’을 분별하여 세상에 투신⁴⁾하는 특별한 방식의 삶을 살아간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년)가 열리고 그 정신이 한국교회 안에서

2) 전세계 교회에 대해 교황이 발표하는 공식적 사목교서를 말한다. 주로 교리적이거나 도덕적, 혹은 규율적 문제를 다룬다(가톨릭대사전).

3) 자세한 내용은 23~28쪽에서 다루고자 한다.

4) 어떤 일이나 분야에 뛰어듦을 의미

씩트기 시작할 무렵, 한국은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민주적 질서가 파괴되고 시민들의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이에 김수환 추기경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하 정의구현 사제단)은 어려운 시기마다 민주화 운동 인사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였으며 정권의 불의를 폭로하였다. 그리고 당시 한국 가톨릭교회의 평신도 단체들 또한 사회정의의 외침을 외쳤고 여성 수도자들도 함께 하였으나 엄밀히 보면 이 시기는 사제와 평신도들의 적극적 사회참여 활동이 두드러지는 시기였다.

민주화 운동을 통해 한국 가톨릭교회는 사회적 공신력과 평판이 상승하여 1980년대 이후 가톨릭교회에 입교⁵⁾하는 신자들의 수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가톨릭교회는 새 신자들의 교육, 성당의 건축과 증축, 신자관리 업무 등의 교회의 현실적 업무에 집중하면서 교회의 “관심의 내부화 또는 사회적 관심의 약화”로 이어졌다. 그리고 1987년 무렵은 한국 가톨릭교회의 상부 지도층(주교)이 보수화되었고 진보적 단체에 대한 통제도 심화되었다. 특히 민주화 운동 시기 사회참여에 앞장 선 평신도 단체의 공인·비공인 논란⁶⁾은 교회 내 진보적인 평신도 단체들의 약화 또는 보수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한국 가톨릭교회의 ‘관심의 내부화’와 보수화는 ‘진보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약화시켰고 ‘보수적 사회참여’인 생명운동⁷⁾과 환경운동으로 전환되었

5) 종교를 믿기 시작함,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됨

6) 1987년~1989년 이후 보수교권세력이 이전 민주화 운동 시기 사회참여에 앞장 선 교회의 인준과 감독을 받지 않는 자발적인 신자단체들을 비판하고 통제하였다. 단체들을 주교회의와 각 교구 산하 단체로 등록하도록 하였고 단체장을 사제나 보수적인 평신도로 대체하였다. 교회 내 진보 단체들간의 네트워크는 약화되었고 진보적 단체들이 몰락, 약화, 보수화되었다. 이들 단체는 평신도 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농민회, 가톨릭노동청년회, 명동가톨릭청년회,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도시빈민위원회, 가톨릭문화운동협의회 등이다(강인철, 2008: 330~349).

7) 주교회의가 직접 주도하였고 보수 성향의 천주교 단체들도 참가하였고 한국 가톨릭교회의 사회참여 활동으로 진면에 부각되었고 진보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주변화 시켰다. 생명 운동에는 낙태와 인공피임 반대, 안락사 금지, 사형제도 폐지, 인공수정과 인간복제 반대 등이다(강인철, 2008: 495~514).

다(강인철, 2008: 330~349, 379~393).

하지만 2008년부터, 최근 10년간의 보수·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한국 가톨릭교회는 진보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이 활동에 사제와 여성 수도자들이 주축이 되었으며 특히 과거 민주화 운동 시기와 비교해 보면 여성 수도자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두드러졌다⁸⁾.

최근의 사회참여 활동은 강우일 주교 및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주교회의 정평)’를 중심으로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하 교구 정평) 사제들이 중심적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이전 민주화 운동 시기 김수환 추기경과 함께 정의구현 사제단이 주도적 활동을 펼친 것과 유사하다. 최근에 여성 수도자의 사회참여가 두드러진 것은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들이 예언자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전환을 위해 힘쓴 그간의 노력과 함께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이하 장상연합회)’ 내 생명평화분과 전담자를 중심으로 각 수도회 간 네트워크가 강화와 각 수도회 내 조직화의 결과였다. 그리고 사제와 수도자에 비해 평신도 층의 사회참여가 저조한 것은 1987년 이후 한국 가톨릭교회의 통제와 보수화로 인해 교회 내의 진보적인 평신도 단체들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보수화되었고 이와 함께 한국 사회는 정치적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 진영이 급속히 성장하였고 활동의 장이 넓어졌기에 교회 내 진보적 평신도들이 시민사회 진영으로 이탈하였기 때문이다.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들은 200주년 사목회의⁹⁾ 이후 장상연합회와 수

8) 남자 수도회 61개 1,593명이고 여자 수도회는 116개 10,095이다(주교회의 통계자료, 교황청립 수도회와 교구설립 수도회 그리고 사도생활단의 합계). 남녀 수도회를 비교해보면 수도회 숫자나 회원들의 숫자가 여자 수도회가 월등히 많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교구를 중심으로 발전되었기에 남자 수도회들이 한국 교회 내에서 성장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사회참여 활동에도 여성 수도자들이 남자 수도자들에 비해 참가 숫자도 월등히 많고 전면에 부각된 면이 있다.

9) 1984년 한국 가톨릭 전래 200주년 기념으로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처음 하느님 백성 전체, 평신도·수도자·성직자들이 함께 모여 ‘전국사목회의’(pastoral council in Korea)를 개최,

도회 차원에서 ‘수도자의 정체성과 고유한 역할’에 대해 쇄신 작업을 하였고 최근에는 시대 상황에 따른 사회와 교회 안에서의 예언적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전개하였다.

2015년 봉헌생활의 해’를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6.4%의 수도자들이 사회문제에 참여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 ‘사회적 공동선의 실현은 모든 이의 의무이므로’가 42.3%, ‘수도자로서 예언자적 수행의 방법 이므로’를 35.3% 응답하였다. 그리고 수도자로서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적절한 방법으로는 ‘사회적 갈등과 고통이 있는 현장에 수도자들이 함께 하는 것’ 35.4%, ‘시대의 징표를 식별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14.7%이다. 이처럼 많은 여성 수도자들이 예언자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고 있고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의 예언적 역할로서의 사회참여 활동이 최근 10년 간 활발하게 이루어진 배경과 그 동기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의 예언자로서의 사회참여 활동의 배경과 동기를 살펴보기 위해 ‘예언자로서의 역할 전환’과 ‘JPIC 활동의 확대’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그 동기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성 수도자들은 정체성의 자각과 확립 과정에서 수도자로서의 예언자적 역할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사회참여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참여 활동이 수도자 개인의 판단과 선택 보다 장상연합회 또는 수도회 전체 차원에서의 선택과 공동대응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다. 이는 수도자는 수도회 규칙과 장상의 의견에 순명하는 신분적 특수성이 작용하므로 수도자의 활동은 조직의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민족의 복음화의 목표 선정, 한국 교회의 문제를 논의, 미래 지향적인 선교 대책 수립, 한국 가톨릭교회 내에서는 최초로 수도자 문제를 다루었다.

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장상연합회 또는 수도회 차원에서의 사회참여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들이 교회와 사회 안에서 기존의 기능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예언자적 역할’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한 다양한 동기들을 종교적 가치의 변화, 교회 내의 리더쉽의 변화, 여성수도자의 조직 내 위기와 함께 여성 수도자에 대한 문제제기와 예언자적 역할의 인식과 전환, 그리스도교 사회운동의 등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여성 수도자들이 예언자적 역할로서의 전환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참여 즉 ‘JPIC 활동의 확대’가 이루어진 배경을 시대상황과 함께 여성 수도회 간 네트워크 강화와 수도회 내 조직화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강화와 조직화 과정이 여성수도자의 연대활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분석틀

1)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 가톨릭의 여성 수도회 중 ‘활동 수도회¹⁰⁾’를 중심으로, 사회참여의 다양한 배경과 동기들을 고찰하기 위해 여성 수도자의 예언자적 역할의 전환과 여성 수도자들의 사회참여 활동인 JPIC¹¹⁾(Justice· Peace·

10) 자세한 내용은 16~17쪽에서 다루고자 한다.

Integrity of Creation, 정의·평화·창조질서보전) 활동의 확대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역할전환의 동기를 살펴보기 위해 가톨릭교회 종교적 가치, 리더십의 변화, 여성 수도회와 수도자의 상황, 교회 내의 다양한 문제제기, 초교파적인 교회의 사회운동인 JPIC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성 수도자의 사회참여 즉 JPIC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강화와 수도회 조직화와 여러 사회참여 현장 중 하나인 강정 해군기지건설 반대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 가톨릭의 여성 수도자의 사회참여 활동의 다양한 배경과 동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장상연합회 정기총회 자료와 공문, 생명평화분과 회의록과 비공식 내부자료, 관련기사와 잡지 등을 수집하여 문헌 분석을 하였고 인터뷰와 참여관찰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이다.

첫째, 국내 논문 및 관련 서적, 연구보고서 등을 통하여 종교의 기능, 종교의 예언자적 기능과 카리스마, 사회참여, 수도생활의 성격에 대해 정리하였다.

둘째,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공식공문과 정기총회자료집 · 정기총회결과자료집 그리고 생명평화분과 회의 자료와 비공식 내부분서 등을 분석하여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의 역할과 조직을 분석하였고 그 중 생명평화분과의 설립과 역할 및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교회 내 여성 수도자와

11) 자세한 내용은 차후 다루고자 한다.

관련된 설문조사나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여 수도권 관련 현황과 변화 추이에 관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셋째, 참여관찰의 방법을 동원하였다. 본 연구자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사회참여를 시작하였다. 연구자는 광화문의 세월호 단식장에서 이루어지던 미사와 기도회 참여를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여러 현장의 방문과 연대활동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 참여를 통해 가톨릭교회 및 한국교회의 활동과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수도자들의 사회참여를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연구자가 속한 수도회는 JPIC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JPIC 전담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본 연구자는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 JPIC 네트워크 형성과 조직화 과정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넷째, 문헌과 통계자료 그리고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도 얻지 못한 정보에 대해서는 면접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면접조사에는 7명(5개 수도회)의 여성 수도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들은 수도회 내의 JPIC 위원 또는 전담자, 생명평화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고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에 연대하였다. 면접조사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진행하였다. 면접조사 대상자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인터뷰 대상자

번호	이름	나이/ 수도연령 12)	인터뷰 날짜	역할	내용
1	A	71세/49년	2018. 4.13	수도회 JPIC 전담자	강정 연대활동 활동 중 경찰 연행 (강정)
2	B	65세/32년	2018. 4.20	수도회 JPIC 전담자	강정 연대활동 생명평화분과 활동
3	C	54세/28년	2018. 4.12	수도회 JPIC 전담자	강정 연대활동

					생명평화분과 활동
4	D	50세/22년	2018. 5. 7	JPIC 위원	강정 연대활동
5	E	59세/29년	2018. 4.20	수도회 JPIC 전담자 생명평화분과 첫 전담자	강정 연대활동 생명평화분과 활동
6	F	46세/22년	2017.10.25	수도회 JPIC 위원	강정 연대활동
7	G	50세/26년	2017.10.16	수도회 JPIC 위원	강정 연대활동

2) 연구의 분석틀

아래의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은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의 예언자적 역할로의 전환과 사회참여의 동기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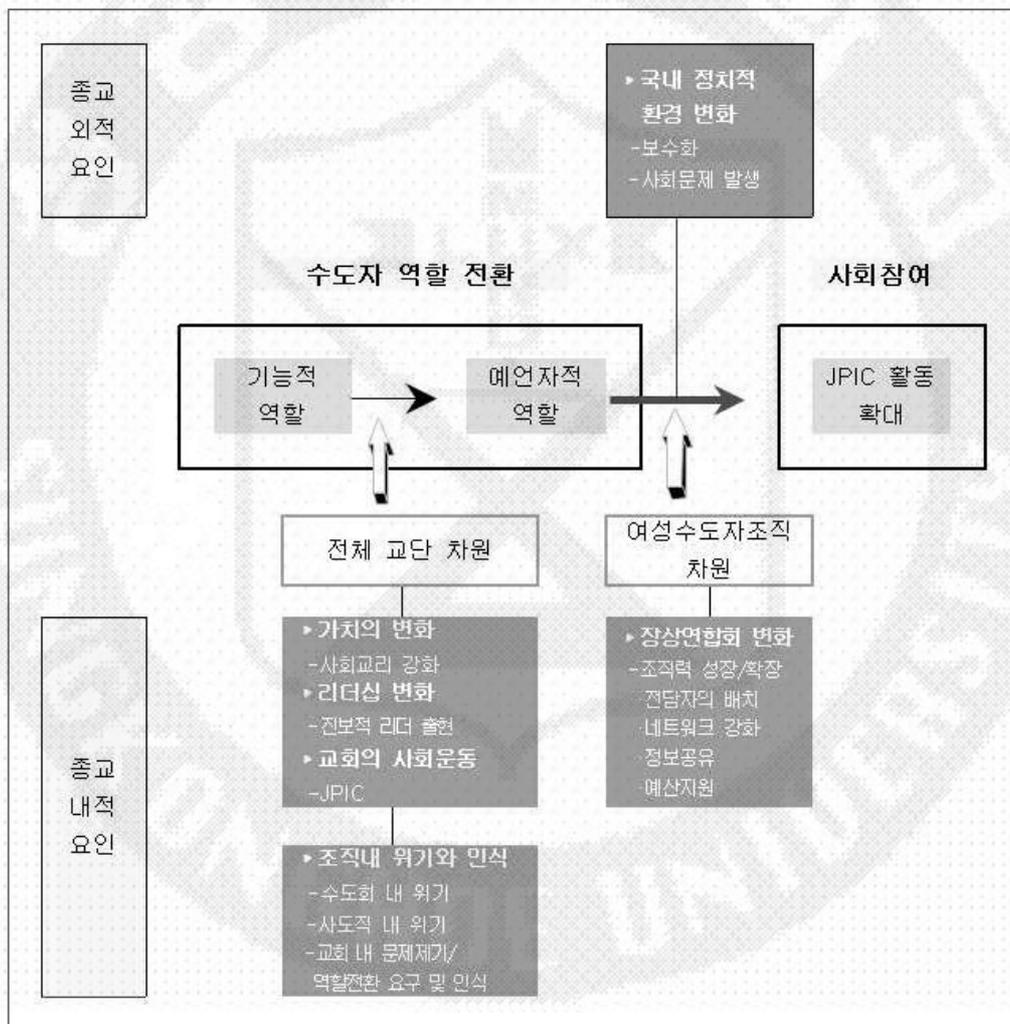
여성 수도자들의 ‘기능적 역할’에서 ‘예언자적 역할’로의 방향 전환 과정에는 다양한 동기들이 작용하였다. 이는 가톨릭교회의 사회참여 종교적 가치의 변화와 함께 진보적인 리더의 출현 그리고 여성 수도자들의 조직내 위기는 변화의 동력이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수도자들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와 전환 요청은 교회 내의 교황청, 한국교회 전체 차원, 각 교구, 장상연합회, 각 수도회에 의해 전개되었다. 이와 함께 종교적 실천이면서 교회의 사회운동 성격을 지닌 JPIC는 최근에 재점화 되었다.

여성 수도자들의 예언자적 역할로의 전환 과정에서 2008년 이후 이명박 정권의 등장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장상연합회는 광우병 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하여 용산, 쌍용 자동차, 밀양, 강정 등의 현장으로부터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연대의 요청을 받았고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장상연합회는 생명평화분과 내에

12) 수도회 입회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전담자를 배치하였다. 그리하여 이 전담자를 중심으로 각 수도회 간 JPIC 네트워크가 강화되었으며 각 수도회 내에서 JPIC 조직화 과정이 발생했고 이 결과로 여성 수도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사회참여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Ⅱ. 이론적 배경

1. 종교의 기능

종교를 정의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종교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본질적 성격’ 구분인데, “본질은 내재적인 성향에 관계된 것”으로 이는 “종교는 무엇인가?”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기능적 성격’인데, “기능은 표출적이고 결과에 관계된 것”으로 “종교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물음과 맞닿아 있다(이원규, 2015: 60~65). 이러한 종교의 정의 방법 중에서 종교의 본질적 성격에 따른 정의는 실제로 한계를 가지고 있어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이것이 종교의 기능적 성격에 따른 정의이다.

종교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는 크게 개인 심리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심리적 기능은 개인의 정신적 차원에서 작용하여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판단 기준이 되며 정체성을 확립(송재룡외, 2015: 1)하게 한다. 또한 심리적으로 긴장을 해소시켜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여준다. 한편 사회적 기능은 역사와 문화 변동, 지배계급과 국가 그리고 일반 시민사회와의 관계, 종교 내부 문제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데, 이 기능은 사회 구조와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맥락과 지배계급과의 관계에 따라 체제유지에 대해 지향적이거나 비판적이며 변화 지향적일 수 있다(오경환, 1997: 26). 이와 같이 종교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종교는 사회적 수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종교는 세 가지 형태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통합’의 기능은 뒤르켐의 사상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이 기능은 종교가 사회의 기본적 가치와 도덕적 규범의 근거를 제공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집합적 의식과 연대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가 하나의 도덕적 공동체로서 질서와 안정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종교의 사회 통합은 종교가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을 정당화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현존하는 사회질서에 순응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오데아(O’Dea)는 종교의 사회통합 기능을 ‘사제적 기능’이라고 정의하며 사제의 역할은 믿음과 가치에 대한 권위적 가르침을 통하여 현존하는 질서를 뒷받침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현상유지에 공헌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원규, 2006: 42~44). 결과적으로 종교의 사회통합 역할은 안정지향적인 보수적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사회통제’의 기능으로, 사회는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규범을 가진다. 이 규범이 지켜지면 사회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반대로 그 규범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는 무질서, 혼란의 아노미 상태¹³⁾에 이르게 된다. 사회통제는 이러한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는 사람들의 일탈행위를 방지하는 것이고 종교는 가장 강력한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종교는 집단적 목표와 이상을 위하여 개인적 목표와 이상을 통제하고 이것에서 일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덕적 제재를 가하고 일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윤리적 가르침을 제공하기도 한다. 오데아(O’Dea)는 종교가 지향하는 규범적 가치는 대체로 그 사회의 질서유지에 도움이 되는데 이는 사회가 개인에게 지키도록 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종교 규범이 힘이 있는 것은 궁극적이고 거룩한 초월적 준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이원규, 2006: 46~47).

13) 사회 내의 집단적 연대성이 파괴되어 타인들과의 안정되고 의미 있는 관계가 박탈된 상태를 뒤르켐은 아노미라고 불렀다(김종서, 2016: 98).

셋째, 종교와 사회변동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데 종교는 사회변동을 촉진할 수도, 사회변동을 억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종교가 사회변동을 조장하거나 촉진하는 종교의 역할을 다루고자 한다. 종교의 ‘사회변동’의 기능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진보적 기능을 수행한다. 종교는 제도화된 규범이 비판적으로 검토될 수 있고, 그것에서 심각한 결함을 발견하는 가치표준을 마련해 줄 수 있다(이원규, 2006: 44~45). 종교의 사회 비판적 기능은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 경제적 불평등과 부정의, 정치적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고 그 질서에 도전하여 사회변혁을 추구한다. 이러한 비판 기능에 대해 베버는 ‘종교의 예언자적 기능’이라고 명하였다(이원규, 2015: 263).

이와 같이 종교에 관한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종교의 기능적 성격에 따른 분류 중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며 특히 ‘비판적이고 변화지향적인’ 사회변동의 기능, 종교의 예언자적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2. 종교의 예언자적 기능과 카리스마

베버는 종교가 사회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다른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면서 예언자와 종교의 예언자적 기능 및 카리스마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1) 예언자와 종교의 예언자적 기능

예언자는 개인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종교지도자로서 신과의 소통, 신으로

부터 위임 받은 과제와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예언자는 자신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초자연적 명령에 대해 그의 입장은 확고하여 타협하지 않는다. 예언자는 과거의 사건에 대해 해석을 하고 미래를 예견하는데, 예언자는 확립된 가치체계가 도전을 받는 불안정한 시기에 빛을 발하게 된다. 예언자는 도덕적 권위를 지닌 지도자로서 기성 질서에 대항한다. 이들의 예언은 인간의 내적 생활뿐 아니라 인간의 외면적 관계에 긴장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 이는 예언자가 제시한 의미의 세계가 대체로 현재의 세계 실재와 다르기 때문이다.

베버는 예언자는 그릇된 전통이나 현존하는 질서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파괴하기를 원하며, 예언자적 종교는 기성 질서에 도전하고 그것과의 단절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사회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종교의 비판기능을 ‘종교의 예언자적 기능’으로 명하였는데 이를 통해 종교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 비판세력으로 사회변동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체제 순응적인 사제적 기능과는 대비된다(이원규, 2015: 262~263)고 보았다.

2) 카리스마(charisma)

라틴어인 카리스마(charisma)의 어원은 ‘은혜나 호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카리스(charis)이다. 카리스마는 AD 50-62년 사이에 쓰인 바울로의 서신에 최초로 등장하였고, 이는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 성령의 은총, 은사, 영적 선물’이라는 뜻을 지닌 종교적 개념으로 시작되었다(이현주, 2010: 24). 바울로가 카리스마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신자들의 마음속에 살며 활동하는 성령의 현존(現存)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사람마다 다양하게 받은 은사¹⁴⁾는 한 분의 성령한테서 나온 것이며

동일한 목적¹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바울로는 인간의 신체¹⁶⁾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가톨릭대사전).

베버는 카리스마를 다른 사람들 위에서 권위를 나타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별한 능력이라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카리스마는 일상인과는 구별되고 초자연적, 초인간적 혹은 특별한 예외적인 힘과 특질을 부여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개인의 특질이다. 카리스마는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불안정과 혁신의 근원이 되고 사회변동의 한 전략적 요소가 된다.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기존의 규범적 질서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이 선언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선포한다. 이러한 카리스마적 리더쉽은 종교집단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종교 영역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내고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권위에 복종하게 되며, 그는 카리스마의 능력을 이용해 추종자들 가운데 사명감을 만들어 낸다(이원규, 2015: 500~503).

교회의 전통 안에서 쓰는 카리스마와 베버가 사용하는 카리스마는 차이가 있다. 전자는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무상의 선물이며 하느님이 부여한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이것은 반드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 반면, 후자는 권력과 리더쉽에 초점을 맞춘 개인에게서 발견되는 특별한 능력으로, 세속적이며 변형된 의미로 사용하였다.

3. 사회참여의 정의

14) 성령(聖靈)의 특별한 은혜, 성령이 각별한 호의로 내려 주는 몇몇 선물을 의미한다. 예언, 영(靈)의 식별, 기적 등의 능력이다(가톨릭대사전).

15) 각 사람마다의 다양한 은사는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6) 하느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들이라고 표현하였다.

앞서 종교의 다양한 기능에서 살펴보았듯이 종교는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종교는 개인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태도와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개인은 사회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종교는 개인을 통해서도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종교는 규범과 가치를 통해 사회를 통합하거나 통제하고 사회변혁을 촉진한다.

오세일은 “‘사회참여’란 종교가 사적 영역에서 개인에게 주는 심리적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또한 자선과 복지 기금 지원 등과 같은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를 넘어서, 정치권력의 부당성과 공권력의 폭력으로 인한 인권 유린에 대한 공적인 대응 및 사회 구조·정책적 변화를 통해 사회 정의와 평화를 증진시키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오세일, 2015: 94).”라고 설명한다.

종교의 사회참여는 인간이 살아가는 토대이고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종교 본연의 자선활동을 넘어서 기존의 정치와 사회 구조와 체제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교적 가치와 규범, 믿음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4. 수도생활에 대한 이해

수도생활¹⁷⁾은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절대적 가치를 따르기 위해 세상의 보편적인 삶의 양식을 등진 특별한 생활양식이다. 가톨릭 수도자는 복음삼덕의 서원을 통해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 이를 통해 교회 안에서 특수한 자격을 받는다. 수도회는 크게 활동 수도회와 관상 수도회로 나눌 수 있는데, 활동 수도회는 관상 수도회¹⁸⁾와 달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17) 수도생활은 고등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나 여기에서는 가톨릭의 수도생활을 말한다.

18) 봉쇄수도원이라고도 불리는데 세상과 단절하고 침묵과 기도 속에서 하느님께 일치를 이

기도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창립자의 정신에 따라 세상 속에서 노동, 자선, 교육, 선교, 의료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도직 수도회’를 뜻한다.

활동수도회 수도자에게 사도직(ministry)은 직업(job)이나 경력(career)이 아니고 ‘예수의 활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도자는 서원¹⁹⁾을 한 사람으로서 소속된 수도회 카리스마에 따라 사도직을 수행한다²⁰⁾. 이러한 수도생활의 특별한 삶의 형태는 수도자들이 세상 안에서 예언자적 역할을 가능하도록 이끈다.

1) 복음적 권고

가톨릭 수도자는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적 권고²¹⁾’인 정결²²⁾·청빈²³⁾·순명²⁴⁾의 서원을 통해 공적으로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한다. 복음적 권고는 예수님의 말씀과 모범에 토대를 둔 것이며, 복음적 권고의 삶 또는 수도자 신분은 교회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신적 은총으로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완수하도록 하느님께서 당신 교회를 위해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다(교회헌장²⁵⁾ 43항).

루며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다.

19) 하느님에게 약속하는 것으로 아래의 ‘복음적 권고(17쪽)’에서 다룰 것이다.

20)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2016, ‘제49차 정기총회 자료집’, 10쪽

21) 복음삼덕(福音三德)이라고도 한다.

22) 하느님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독신의 삶을 택하여 그리스도께 우선적 사랑을 드리고 다른 이들에게 종속되지 않고 세상 모든 이들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보편적 사랑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다.

23) 소유로부터 벗어나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하느님이 내 삶과 가치의 중심이 되고 스스로 가난한 사람이 되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24)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자유 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명령에 따르는 덕을 뜻한다. 특히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은 교황과 소속 직권자(수도회 장상: 수도회 책임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

2) 세 가지 카리스마: 창설자·창립·수도회 카리스마

수도회는 “인간의 문제가 산재한 곳에서(황경희, 2004: 20~21)” 생겨났다. 각 수도회의 창설자들은 교회와 사회의 문제점들을 하느님이 주신 새로운 관점으로 파악하고 복음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특별한 삶의 방식을 선택²⁶⁾한 자들로, 창설자 또는 그의 제자들이 수도회를 창립하였다. 그렇기에 “수도생활의 탄생은 그 자체로 예언적 표현²⁷⁾”이며 수도회의 창설자 또는 창립자는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수도회 안에는 세 가지 카리스마가 존재한다.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서 최초로 공동체를 만든 창설자²⁸⁾에게 준 ‘창설자 카리스마’와 창설자의 영성에 따라 수도회를 설립한 창립자와 첫 제자에게 내려진 ‘창립 카리스마’ 그리고 수도회를 통해 그 다음 제자들에게 전해져 교회와 조화를 이루고 또 역사 안에서 실현되고 심화 발전된 ‘수도회 카리스마’이다.

수도회의 카리스마는 “그 회의 존재 목적, 사명, 영성, 정신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그 수도회가 복음을 따라 사는 나뭇가지의 방법이고 ‘공동체의 삶의 총체적 계획’이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창립 당시와는 달라질 수 있다²⁹⁾. 이 수도회 카리스마는 각 수도회마다 타 수도회와는 구

25)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26) 본 연구자의 수도회인 ‘천주섭리수녀회’는 독일 마인츠의 교구장인 케틀러 주교에 의해 1851년 독일에서 창설되었다. 주교는 산업혁명이라는 혼란한 시기에 분당 사목을 하면서 알게 된 가난한 이들과 병자, 교육받지 못한 이들을 돌보기 위해 교육과 간호를 위한 수도회를 창설하였다.

27)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2007, ‘제40차 정기총회 자료집’, 101쪽

28)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프란치스코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후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여 프란치스코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도회를 설립했다면 프란치스코는 창설자가 되고 첫공동체의 설립자이며 이후 수도회를 만든 사람은 설립자가 된다.

29)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268839¶ms=page%3

별되는 고유한 전통을 가지게 하여 교회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

수도회의 창립 카리스마는 창립자와 초기 회원들에게 내려진 카리스마로, 수도회는 창립자의 체험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통해 그의 의도와 선택을 규명하고 해석과 분별의 과정을 통해 창립자의 카리스마가 과거의 것이 되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 수도회의 창립 카리스마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수도생활의 쇄신의 기준으로 제시되었고 각 수도회들이 창립 카리스마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였다.

3) 수도생활의 본질적 사명의 세 가지 특성³⁰⁾

수도생활의 본질적 사명에 대해서 안소근 수녀는 ‘수도생활의 재발견’에 나타난 세 가지 특성-평신도적 특성, 경계적 특성, 예언자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수도생활의 평신도적 특성이다. 수도생활은 교계제도³¹⁾에 속한 것이 아니며 교회의 사목을 위해 생겨나지도 않았고 수도회 설립 카리스마는 평신도적 토양에서 싹텄다. 그러나 수도자들은 초기 수도자들이 하던 육체노동을 멀리하고 영적이며 문화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평신도들과 괴리가 생기고 예언자적 특성이 약화되었다.

둘째, 수도생활의 경계적 특성이다. 경계집단은 ‘절대자에 대한 특별한 체험 때문에 그에 전념하기 위하여 기존구조와 제도들에게서 분리된 집단 또는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수도 공동체는 기존 사회와 제도의 변두리에

D1%26acid%3D746 가톨릭신문 2015년 7월 12일, <[현대의 봉헌생활](7) 수도회 고유 카리스마>, 검색 2018년 12월 20일

30)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2009, ‘제42차 정기총회 자료집’, 163~165쪽 재구성

31)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체제의 기본, 모든 계층의 성직자- 교황, 주교, 사제-를 다 포함한다.

서 생겨난 경계집단이다. 수도회는 사회변동을 위해 그리스도와 인간의 가장 깊은 가치들을 증거하고 상기시켜 기존의 질서와 가치, 구조에 대해 근본적이고 철저한 변혁을 요구한다.

셋째, 수도생활의 예언자적 특성이다. 수도생활이 예언자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계적 특성에 충실하고 세상과의 긴장을 유지하며 비판적 시각을 잃지 말고 항상 분별해야 한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³²⁾”과 사회 정의의 문제를 간파해서는 안된다.

4) 수도생활의 쇄신³³⁾ 기준

수도회는 창립자의 카리스마를 보존하면서도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심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작업들을 ‘수도회 또는 수도생활의 쇄신’이라고 한다. ‘수도생활 교령³⁴⁾’에서 “수도생활의 적절한 쇄신이란 모든 그리스도인 생활의 원천과 그 단체의 초창기 영감으로 끊임없이 되돌아가는 것이며, 또한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적응하는 것(2항)”이라고 제시한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원천인 복음은 수도생활의 본질과 사명의 기준이 되고 각 수도회는 창립자의 카리스마와 고유한 목적 및 수도전통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보존하며 인간조건과 시대상황 그리고 교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응답해야 한다.

Ⅲ. 수도자의 예언자적 역할 촉진

32) 남미주교회의, 1968년 메델린 문헌, 1979년 푸에블라 문헌의 표현

33) 쇄신은 묵은 것이나 폐단을 없애고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34)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수도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 완전한 사랑(Perfectae Caritatis)』

1. 종교적 가치의 변화

종교는 인간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고 사회의 유지와 관계가 있는 사회적 현상이다. 또한 종교적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고 사건을 해석하며 행동을 계획하게 만들고 선하고 바람직한 것과 피해야 하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믿음체계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종교적 경험과 이론적 표현으로서의 교리³⁵⁾이다(이원규, 2015: 78). 가톨릭교회의 사회참여의 정당성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하 공의회)의 정신으로부터 기인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가르침은 ‘사회교리’로 정리되어 있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사회참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간추린 사회교리서를 번역, 보급하였고 사회교리 주간을 제정하여 홍보하였으며 각 교구는 사회교리 학교를 개설하여 사회교리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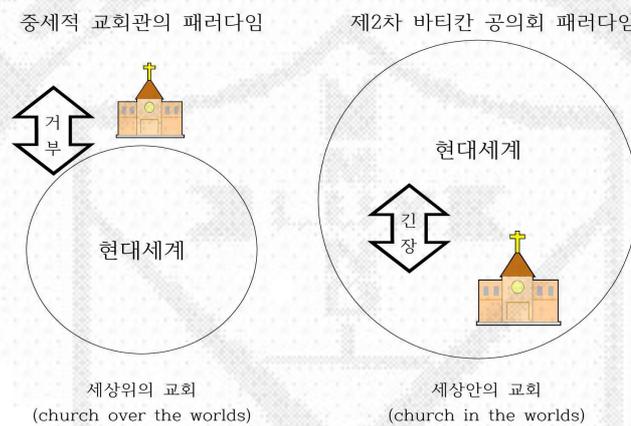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하 공의회)는 1962년 교황 요한 23세 의해 소집되었고, 그 당시 교회는 자유주의적 근대 사상들³⁶⁾이 가톨릭교회의 전통과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하고 ‘모더니즘’이라 통칭하며 강하게 부정하는 등 정교분리의 원칙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가톨릭교회는 이러한 사회 현상을 상당한 도전으로 인식하여 공의회를 개최하였고 전 세계 주교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타종교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였으며 현대 사회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35) 교리는 종교상의 근본 원리나 이치를 뜻한다.

36) 그 당시 사회는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 계몽주의 사상의 발전, 과학의 발전 등의 근대화 물결이 유럽 전역에 전파되고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던 시기였다.

공의회는 “아조르나멘토(Aggiornamento)³⁷⁾, 쇄신과 적응”을 목표로 개최되었고 현시대의 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사고방식 또한 완전하게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아래 [그림 2]에서 보면 공의회를 기점으로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종교 세계관의 패러다임 전환과 교회의 위상의 변화



출처: (오세일, 2015: 102) 재인용

공의회는 현대 세계 안에서 교회가 걸어야 할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교회는 더 이상 세상 위에서 군림하지 않고 세상의 사회문제에 대해 귀 기울여 ‘세상 안에서의 예언직’이라는 공적 역할을 할 것을 요청한다. 현시대에 대한 교회의 새로운 시각은 공의회 문헌 중 『현대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이하 사목헌장)³⁸⁾』에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사목헌장 76항은

37) 쇄신개혁과 쇄신을 가리키는 이탈리아어.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 처음 사용되어 그 뒤 교회의 현대세계에 대한 적응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대변해 주는 말이 되었다(가톨릭대사전)

38) 공의회 문헌은 16개의 문헌(헌장 4개, 교령 9개, 선언 3개)로 이루어져 있고, 『현대세계의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은 그 중 하나이고 현대 사회에서 가톨릭 교회의 사목적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교회가 사회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교회의 직무이며,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 일(추교윤, 2010: 41)”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처럼 공의회에서 교회는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그것은 사회 안에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선포하였다.

2) 사회교리

(1) 사회교리의 이해

가톨릭교회가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레오 13세 교황이 회칙³⁹⁾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⁴⁰⁾’를 반포하면서이고 이것이 사회교리⁴¹⁾의 시작이다. ‘사회교리’는 “정치, 경제, 인권, 노동, 평화, 환경, 생명 등 사회생활의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복음적 시각으로 성찰하고 정리한 가톨릭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⁴²⁾”이다.

사회교리는 종교적 이상과 가치에 비추어 현실 사회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종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수행해야할지 알려주는 것으로 실천 교리에 해당하며 일반 사회의 이데올로기와는 구별된다. 오늘날 가톨릭 사회운동의 방법과 목표의 기준이 된다.

39) 전세계 교회에 대해 교황이 발표하는 공식적 사목교서를 말한다. 주로 교리적이거나 도덕적, 혹은 규율적 문제를 다룬다(가톨릭대사전).

40) 1891년에 발표, 산업 혁명기 이후의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교회의 응답을 담고 있다.

41) 종교가 자신의 종교적 이상과 가치를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시켜온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 사회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종교의 사회문이다.

42)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2011년, 『제30회 인권주일 담화문』

(2) 사회교리 기본원리

‘사회교리의 기본원리’는 사회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이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단체, 개인이 가져야 할 기본 원칙이다. 사회교리의 네 가지 기본원리는 ‘인간의 존엄성’, ‘공동선’, ‘연대성’, ‘보조성’이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의 원리’이며 나머지 세 가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는 수단(황창희, 2015: 85)이다.

① 인간의 존엄성의 원리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으며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특별한 능력인 지성, 자유 그리고 양심을 소유(황창희, 2015: 86)하고 있고, 인간은 누구나 존귀하고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창조주 하느님의 협조자이므로 그 존엄성은 언제나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인종, 국가, 성별, 출신, 문화,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평등과 우애의 궁극적인 바탕이 되고 정치·경제·사회·연대의 기본적 권리의 근거⁴³⁾가 되며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가치이다.

② 공동선⁴⁴⁾의 원리

사목헌장 26항에서는 “공동선이란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를 가리킨다.” 라고 표현한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43) http://www.catholicjp.or.kr/index.php?mid=issue&category=7386&document_srl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홈페이지,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 기본 원리들>, 최종검색 2018년 9월 17일

44) 인간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지칭하는 데에 공동선이란 용어뿐 아니라 공동 복지, 공동이익, 진보, 발전과 같은 용어도 병용한다(가톨릭대사전).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이다. 인간의 자기완성과 사회적 조건들은 필수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며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회적인 결합’인 공동체에 공동선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공동선은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 제도를 만드는 사회의 핵심가치이다. 공동선을 위해서는 재화의 분배(재화의 보편적 목적⁴⁵⁾)와 이웃 사랑(가난한 이들의 우선적 선택⁴⁶⁾)의 정신이 필수적이고 국가는 인간의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올바른 정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박정우, 2012: 252~254).

③연대성의 원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해야 하는데 이것이 연대성이다. 이 원리는 “개인 상호간이나 개인과 사회, 민족들 간에 상호 의존과 유대를 바탕으로 서로 간에 책임을 지고 돌보아야 한다(박정우, 2012: 255).”는 것이다. 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는 공동선 실현을 위해서 중요하다.

④ 보조성의 원리

“인간의 사회성에서 연대성의 원리가 나온다면, 인간의 개별성에서 보조성의 원리가 나온다⁴⁷⁾.” 보조성의 원리는 국가와 같은 상위 단체들이 개인

45) 사목현장, 69항, “하느님께서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사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풍부히 돌아가야 한다.”

46) 간추린 사회교리, 182항, “재화의 보편 목적의 원칙은 가난한 이들, 소외받는 이들, 어느 모르든 자신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생활 조건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47) http://ucatholic.or.kr/Jsource/Jboard/list.asp?ji_num=69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게시판, <사회교리 4대 원리와 참여>, 최종검색 2018년 9월 17일

과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보호하되 그들의 자율성, 창의성 그리고 주체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3) 사회교리의 강화: 사회교리 대중화

(1) '간추린 사회교리'의 번역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는 사목현장 반포 40주년을 맞이하여 교황 요한 바오로2세의 권고에 따라 '간추린 사회교리⁴⁸⁾'를 편찬하였다. 이 교리서는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반포 이후 약 100년 동안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⁴⁹⁾'을 핵심 정리하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생활을 살아가기 위해 따라야하는 “성찰의 원리와 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지침을 제시⁵⁰⁾”한다. 한국에서는 이 교리서를 통해 가톨릭의 사회사목이 더욱 활성화되고 한국 사회의 복음화가 더 활발히 추진되기를 바라며 2005년 번역되어 출판 보급되었다.

(2) 사회교리주간 선포

2006년 주교회의 정의평화 위원회 정기총회에서는 사회교리 대중화를 위한 노력과 '간추린 사회교리' 활용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리고

48) 2004년 10월 바티칸에서 영문판으로 출판된 '간추린 사회교리'는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가 1891년 레오13세 교황의 회칙 '새로운 사태 (노동현장)' 이후 반포된 사회 문제에 관한 문헌들을 주제별로 집대성한 가톨릭 사회교리서인데, 인간과 인권, 교회의 사회교리 원리들, 가정, 인간 노동, 경제생활, 정치 공동체, 국제 공동체, 환경보호, 평화증진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가톨릭지금여기 2007년 2월 11일 기사).

49) 사회회칙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 입장을 밝히고 있다.

50)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5, 『간추린 사회교리』, 28쪽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신자들이 일상에서 사회교리를 내면화하기 위해 ‘사회교리주간’을 제정할 것을 제청하였다. 이에 한국천주교 주교단은 총회에서 2011년부터 인권주일인 대림⁵¹⁾ 제2주일부터 한 주간을 ‘사회교리’ 주간으로 정하여 지내오고 있다.

(3) 사회교리학교 개설

사회교리주간 제정과 함께 각 교구는 정의평화위원회나 사회사목국, 평신도 협의회 등이 중심이 되어 사회교리 보급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교리 학교’ 개설하였다. 아래의 <표 2>는 각 교구별 사회교리 학교 개설연도와 현재 지속 여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2005년 ‘간추린 사회교리’ 한국어판 출판 이후 다수의 교구가 사회교리 학교를 개설하였음을 볼 수 있다.

각 교구와 수도회 내의 사회교리 학교는 신자들과 수도자들에게 사회참여에 관한 종교적 가치의 심화와 연대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의 기회가 된다. 사회교리학교에 참석한 F 수녀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⁵²⁾.

P교구의 정의 평화 위원에서 실시하는 사회교리에 참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의식화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실천에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표 2> 각 교구 ‘사회교리 학교’ 개설과 지속여부

번호	교구	개설연도	현재
----	----	------	----

51)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수성탄 전 4주간을 말한다.

52)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2014, ‘제47차 정기총회 자료집’, 결의문 실행 보고서 중에서 발췌

1	서울	1995	지속
2	수원	1997	지속
3	청주	2001	중단
2005년 '간추린 사회교리' 번역			
4	마산	2006	지속
5	인천	2006	지속
6	광주	2007	'사회교리를 읽는 소모임'으로 대체
7	대전	2009	지속
8	전주	2009	중단
2011년 '사회교리 주간' 신설			
9	의정부	2011	지속
10	제주	2011	지속
11	대구	2012	중단
12	부산	2012	지속
원주, 안동, 춘천, 군중교구는 개설되지 않음			

출처: (김선필, 2016: 359) 재구성

2. 리더십의 변화 : 진보적인 리더의 출현

카리스마적 종교지도자는 '탁월성과 압도하는 능력'으로 교회와 사회 안에서 예언자적 역할을 함으로써 신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톨릭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교계제도⁵³⁾를 운영하고 있기에 교황과 교구장의 성향과 철학적 이념에 따라 지역교회와 신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53) 교황-주교-사제의 계급구조로 구성, 교황은 전 세계교회를 통치하고 지역교회(교구)의 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교구장(주교)은 일정 지역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교구 내 사제들의 인사, 재정, 행정의 최고 권한을 가진다. 타지역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제는 주교에 의해 파견된 본당 내에서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주교의 통제 하에 있다.

최근 가톨릭교회의 프란치스코 교황과 한국의 강우일 주교는 대사회적 발언과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종교인으로서 귀감을 보여주었고 한국 가톨릭교회와 여성 수도자들이 사회참여를 촉진하였다.

1)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선출된 후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가감 없이 하고 가톨릭의 오랜 폐단을 청산해 나가는 개혁적 인물이다. 교황은 남미 출신으로 그 지역에서 시작된 ‘해방신학⁵⁴⁾’에 영향을 받았고 교황직을 수행하면서도 난민, 노숙자, 수감자, 병자들 등 소외된 이들에게 과격적인 행보를 보여줌으로써 전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다.

교황은 두 권의 책⁵⁵⁾을 통해 가톨릭교회와 신자들에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⁵⁶⁾의 정신을 다시 환기시켜주고 교회의 쇄신과 함께 사회문제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1) 복음의 기쁨 (Evangell Gaudium)

교황은 권고⁵⁶⁾인 ‘복음의 기쁨(Evangell Gaudium)’ 통해 인간을 소모품처럼 취급하여 사용 후 버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복음화의 사회적 차원을 제시하였다. 교회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선교와 쇄신을 촉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특히 사회 질서와 공동선 추구와 관련된

54)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새로운 신학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방신학의 주된 관심은 사회의 구조 악으로 부터 인간을 해방시킴으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데 있다(가톨릭 사전).

55) 교황 권고인 ‘복음의 기쁨(Evangell Gaudium)’과 교황회칙인 ‘찬미받으소서(Laudata Si)’

56) 특정한 단체에게 주는 문헌이며 보통 법적이기보다 권면적이다(가톨릭 전례사전).

모든 것에 대한 재검토(복음의 기쁨 182항)”와 실천적인 사회참여를 요청하였다.

어느 누구도 종교를 개인의 내밀한 영역으로 가두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참다운 신앙은 결코 안락하거나 개인적일 수 없는 것으로서, 언제나 세상을 바꾸고 가치를 전달하며 이 지구를 이전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물려주려는 간절한 열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 확실히 “정의가 모든 정치의 목적이며 고유한 판단 기준”이라면, 교회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비켜서 있을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또 사목자들은 더 나은 세계의 건설에 진력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 교리는 무엇보다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을 하며 개혁적인 활동 방향을 가리켜 줍니다(복음의 기쁨 183항).

교황은 “자신의 안위만을 신경 쓰고 폐쇄적이며 건강하지 못한 교회보다 거리로 나와 다치고 상처 받고 더럽혀진 교회를 더 좋아한다(복음의 기쁨 49항).”고 밝힌다. 그리고 “치유하고 낫게 하는 것, 이것이 전투 후의 야전병원으로서 교회의 사명⁵⁷⁾”임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야전병원’이 되어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이들 곁에 다가가 위로자와 치유자의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2) 찬미받으소서 (Laudata Si)

교황은 가톨릭교회 역사상 최초의 생태회칙인 ‘찬미받으소서(Laudata Si)’를 통해 피조물을 둘러싼 환경과 사회에 당면한 위기⁵⁸⁾와 근원⁵⁹⁾을 다각적

57) 교황은 2013년 8월, <치빌타 카톨리카>의 편집장인 예수회 안토니오 스파다로 신부와 대담에서 처음 ‘야전병원’의 개념을 설명했다 (가톨릭뉴스지금여기 2018년 6월 29일 기사)

으로 밝히고 인간적·사회적 차원의 “통합적 생태론60)”을 제시한다. 피조물의 ‘공동의 집’인 지구를 소중히 여기고 착취를 중지할 것과 생태적 회개를 요청하는 한편 “환경과 사회의 훼손”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하였다.

(3)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

한국교회와 사회는 특히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을 통해 그의 말과 행동을 직접 목격하였고 큰 감동을 받았다. 교황의 한국 방문은 도착하면서부터 떠날 때까지 고통 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교황 방문 직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은 교황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교황 방문과 더불어 외신 기자들에 의해 세월호 참사가 다시 깊이 있게 조명되었다. 마지막 날에 열린 ‘평화와 화해의 미사’에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 쌍용 자동차 해고노동자들, 제주강정 마을 주민들, 밀양 송전탑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 용산 참사 피해자들 등이 초대되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은 아래의 [그림 3]와 같다.

기내에서 열린 귀국 기자회견에서 교황은 그의 행동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인간의 고통은 매우 강력하지만, 이러한 슬픈 때에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간다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세월호 리본을 들어 보이면서) 저는 이것

58) 오염과 기후변화, 물 문제, 인간 삶의 질의 저하와 사회 붕괴 등 그 외 다양한 의견 (제 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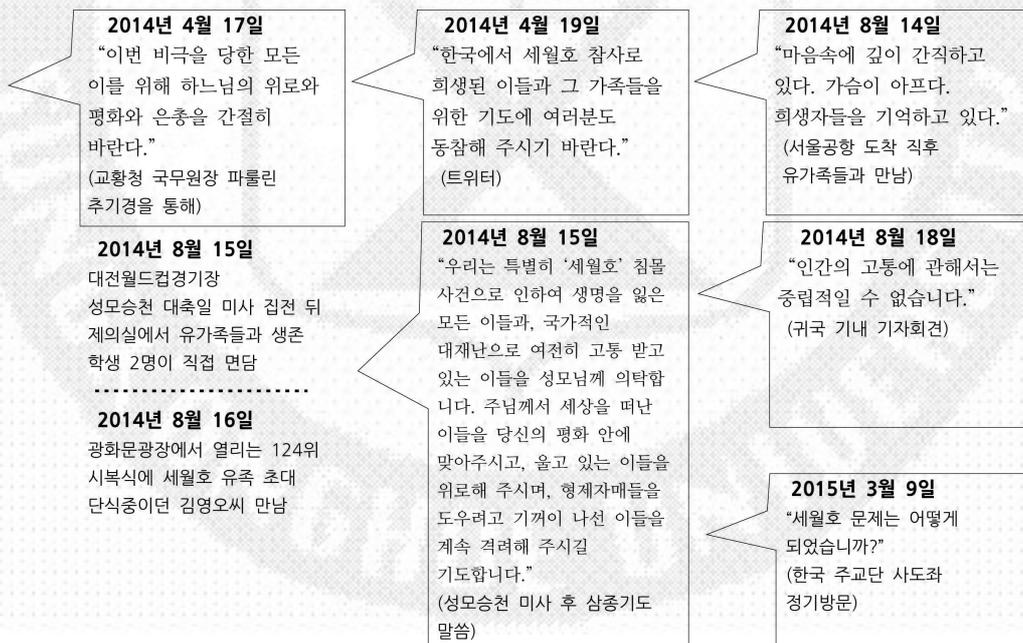
59)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의 세계화와 인간 중심주의 (제3장)

60) 생태론은 살아있는 유기체들과 그 유기체가 성장하는 환경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으로 피조물을 둘러싼 환경·경제·사회·문화·일상생활의 생태론을 말한다.

을 달았습니다. 제가 만나질 정도 이것을 달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들과 연대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하께서는 중립을 지키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인간의 고통에 관해서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김근수, 2014: 225).”

“인간의 고통에 관해서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라는 교황의 이 말은 세월호와 다른 고통 받는 현장에 연대하기를 머뭇거리는 사람들 특히 정부의 정치적 공세에 혼란을 겪고 연대에 소극적이었던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림 3] 세월호 사건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



출처: 경향신문 2014년 8월 14일 기사⁶¹⁾와 (김근수, 2014: 87, 225) 재구성

6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142209225&code

경향신문 2014년 8월 14일 기사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최종검색 2017년 7월 24일

2) 강우일 주교

강우일 주교는 2008년 주교회의 의장에 선출되어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 해까지 의장직을 수행하였다. 이 시기는 1987년 이후 한국 가톨릭교회의 사회참여 활동이 다시 활발해진 때와 거의 일치한다. 주교회의 의장 재임기간 중 강우일 주교는 각종 사회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담화문과 성명서, 인터뷰 등을 통해 가톨릭의 공식입장을 밝혔고 직접 농성장과 참사의 현장을 방문하여 정권과 자본 권력 그리고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을 위로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교의 행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이들은 교회가 왜 사회문제에 관여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 물음에 강우일 주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왜 정치적인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고 한다. 성직자는 종교적인 일만 하면 되지 왜 전문가도 아니면서 나서느냐고 한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간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의 품위와 존엄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모든 일에 교회는 무관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인간과 무관한 일이 어디 있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같은 모든 영역이 다 인간과 직결되는 일이다. 정치든 경제든 과학이든 기술이든 하느님을 닮은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데 대해 교회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강우일, 2012: 52).

특히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교황님의 방문 전 시복미사를 위해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철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주교회의 의장으로 과감한 결단력을 발휘하여 “눈물 흘리는 이들을 내쫓고 전례를 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어놓음으로써 농성장이 보존되었고 유가족 김영오씨와 교황님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었다.

또한 강우일 주교는 제주교구장으로서 4.3 사건을 널리 알리고 강정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하였다. 또한 강주교는 4.3 역사적 아픔을 겪은 제주도민이 해군기지 건설 명분으로 다시한번 공권력에 의해 희생과 고통을 당하게 됨을 상기시켰고 연대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3. 그리스도교 사회운동의 등장 : JPIC

JPIC는 정의·평화·창조질서보전(Justice·Peace·Integrity of Creation)을 뜻하는 것으로 가톨릭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공의회 이후 1966년부터 바티칸과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서로 교류하면서 사회정의 문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전개⁶²⁾하였다. JPIC는 개혁적 장로교 연합체인 세계개혁교회 연맹(WARC)에서 처음으로 제안하였고 1983년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에서 채택된 “교회 운동”⁶³⁾이다. 이 교회운동은 “동서간의 냉전이 침체화되고, 핵문제가 대두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던 시기에, 소련의 핵 위협으로부터의 안전과 인간의 존엄성을 거스르는 정의의 문제들, 남북 대륙간의 경제적인 문제들과 당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환경문제에 대해 그리스도교인들의 관심을 호소(이숙자, 2003: 22)”하

62)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85264.html>

한겨레신문 2013년 4월 30일 기사 <생명신학 싹틔운 ‘서울 JPIC 세계회의’ >, 최종검색 2018년 7월 27일

63)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1> 가톨릭뉴스지금여기 2015년 10월 5일 기사 <교회 내 시민사회 영역 넓혀야>, 최종검색 2018년 6월 30일

면서 시작되었다.

WCC는 가맹 교단 교회들에게 “정의와 평화와 창조질서 보전⁶⁴⁾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화해의 과정에 가담하도록” 촉구하였고 이에 WCC 비가맹 교단의 교회들, 특히 로마 가톨릭교회와 지역 에큐메니칼⁶⁵⁾ 단체와 JPIC 활동하고 있는 민간 운동단체들 까지도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다⁶⁶⁾. 밴쿠버 회의는 인류가 ‘정의의 위배와 평화의 위협, 인간과 생태계 파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운동의 목적은 인류와 교회의 공통과제인 인권, 경제 불평등, 민주주의 실현 등 현대사회의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⁶⁷⁾”는 것이었다.

1990년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JPIC) 서울 세계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되었고 여기에 가톨릭교회도 참가하면서 JPIC가 한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것은 한국이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있었고 개발독재에 의한 환경파괴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 대회를 통해 평화의 실현은 정의의 실현과 창조질서 보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대회에 참여한 오재식은 한겨레와의 인터뷰⁶⁸⁾에서 JPIC 서울 세계대회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환경파괴·기후온난화 같은 지구적 차원의 생태 문제에 대한 토론과 함께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고 보살펴야 한다.’는 새로운 기독교인의 과제를

64) 제1세계 교회는 평화, 제3세계 교회는 정의 문제를 핵심적 과제로 생각하면서 양측 모두 ‘창조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이숙자, 2003: 23).

65)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추구하는 교회일치운동

66) 세계교회협의회(WCC), 1990,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JPIC) 서울 세계대회 문서”, 1쪽

67) 위의 가톨릭뉴스지금여기 2015년 10월 5일 기사

68) 위의 한겨레 2013년 4월 30일 기사

제시했다. 중요한 점은 그 생명이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임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위협은 생태적인 위협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이 회의는 이후 ‘생명신학’을 탄생시키는 씨앗을 품고 있기도 했다.

JPIC 서울 세계대회를 통해 가톨릭교회의 사회운동은 기존의 ‘정의·평화’에서 환경에 관한 가치관을 더하여 ‘정의·평화·생태’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90년 JPIC 서울 세계대회 이후 JPIC 운동은 쇠퇴하였고 유럽교회의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도미니코 수도회에서 소규모로 움직이고 있었으나 그 영향력은 미미하였다(이숙자, 2003: 24). 한국에서는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중심으로 ‘정의·평화·창조보존(약칭 정평창보)’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지다가 최근 여성 수도자를 중심으로 사회참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JPIC 명칭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래 외국에서 시작한 JPIC 운동이 세계적으로 비활성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는 JPIC의 이름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바로 이 문제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고의 문제의식이다.

IV. 수도자의 예언자적 역할 인식과 전환

1. 여성 수도자의 조직 내 위기

한국의 여성수도회는 진출 또는 설립부터 한국 사회 및 가톨릭교회의 발전과 함께 성장했고, 사회와 교회로부터 요청받은 역할에 충실하였다. 그러나 근래

여성 수도자들은 고령화와 성소자 감소라는 수도회 존립의 위기와 함께 수도자로서의 고유한 역할 수행의 제약이라는 사도직 상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여성 수도자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역할전환의 요구는 200주년 사목회의 이후 교회와 장상연합회, 수도회의 식별⁶⁹⁾과 쇄신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이를 통해 여성 수도자들은 수도자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 숙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성 수도자들은 시대 요청에 귀 기울이게 되면서 자신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투신하기를 원했고 사회문제에 대한 예언적 역할을 ‘현시대의 새로운 역할’, ‘새로운 사도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1) 수도회 내 위기 : 성소자 감소와 고령화

성소자⁷⁰⁾의 감소와 회원의 고령화 문제는 수도회 존립의 문제로 수도자들에게는 특히 민감한 사안이다. 장상연합회 제44차 정기총회(2011년)에서 논의된 ‘한국 수도회가 향후 10년 후 당면할지도 모르는 어려움’으로 ‘성소자 감소와 고령화’가 선정되었다.

성소자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인해 수도회는 내부의 통치 구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현재의 사도직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사도직에 대한 재평가에 따른 개폐가 불가피하였다. 평가에 따른 사도직 개폐는 수도회 쇄신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1) 성소자의 감소

최근 한국 여성 수도자 집단의 양적 성장 추세는 둔화되고 있고, 아래의

69)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종교적 의미이다.

70) 수도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수도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표 3>에서 나타난 여성수도회의 초기 양성자들의 숫자 역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표 3> 초기양성자⁷¹⁾의 수 변화 추이

년 도	수 녀 회 (개)	지원기 (명)			청원기 (명)			수련기 (명)			지,청원 수련자 합계 (명)	유기서원기 (명)		
		한 국 인	외 국 인	합계	한 국 인	외 국 인	합계	한 국 인	외 국 인	합계		한 국 인	외 국 인	합계
2000	74			318			342			596	1,256			1,857
2002	85			244			324			650	1,218			1,859
2004	91			216			254			551	1,021			1,710
2006	96			198			251			417	866	1,454	46	1,500
2008	99			147			178			441	766	1,215	50	1,265
2010	102	103	29	132	145	25	170	310	29	339	641	926	101	1,027
2012	107	88	35	120	139	41	180	208	45	253	556	797	100	897
2014	107	87	22	109	127	49	176	192	49	241	526	610	127	737
2016	107	54	48	102	100	67	167	164	57	221	490	504	102	606

출처: 2000년~2017년의 장상연합회 정기총회 통계자료를 재구성⁷²⁾

성소자의 감소 현상은 여성 수도자들에게 “왜 젊은 여성들은 수도자의 삶을 선택하지 않는가? 지금 있는 수도 삶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생명평화분과 회의⁷³⁾에서 수도자들은 세상과의 연대하고 사회 참여를 힘들지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수도자들이 전적으로 투신하여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각 수도회의 성소가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2) 수도자의 고령화

71) 수도회 입회를 하면 ‘지원기·청원기·수련기·유기서원기’의 약 10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종신서원을 하면 수도회 종신회원이 된다.

72) 장상연합회 자료가 유기서원기는 2005년, 지·청원기와 수련기는 2009년부터 외국인과 한국인 구분되어 작성됨. 외국인은 주로 제3세계에서 출신이다.

73)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2013년, 제1차 정기회의 회의록

2011년 장상연합회 총회에서 수도자들이 고령화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이는 여성 수도회 내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심각하게 대두될 현실적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아래의 <표 4> 따르면 고령화의 분포가 높지는 않으나 고령화 단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활동 여자수도회 연령 분포 2011년 기준

설립 연도	190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전 체 (82)
연령											
20-24	0	0	0.4	0	0.1	0	0.3	0.4	0	0	0.2
25-29	0.8	0	1.6	0.9	1.2	0.6	2.9	3.4	0	0	1.4
30-34	4.4	5.5	6.4	3.4	5.1	4.6	6.4	7.3	7.1	0	5.3
35-39	11.6	8.7	13.2	8.7	11.5	9.7	9.4	12.8	16.7	14.8	11.1
40-44	11.7	13.4	13.9	12.6	17.4	17.8	16.3	25.0	17.9	18.5	16.5
45-49	12.1	13.7	10.4	13.3	16.1	18.6	15.4	21.8	25.0	18.5	15.6
50-54	12.2	10.8	13.9	17.2	16.3	21.0	22.9	15.8	7.1	18.5	16.7
55-59	12.4	11.0	8.2	12.7	9.5	13.7	14.1	6.3	9.5	11.1	10.9
60-64	8.0	9.6	6.3	6.4	4.9	6.6	5.6	2.4	8.3	3.7	6.0
65-69	6.7	8.4	10.5	8.6	5.7	4.1	2.9	2.0	6.0	7.4	6.0
70-74	6.0	12.5	9.9	7.8	7.9	2.5	2.7	1.2	1.2	7.4	5.8
75-79	5.6	4.7	4.0	4.9	2.9	0.3	0.9	0.6	1.2	0	2.6
80-84	4.7	0.6	0.6	2.4	0.9	0.4	0.1	0.1	0	0	1.1
85-89	2.0	0.6	0.5	0.8	0.4	0	0	0.2	0	0	0.5
90-	1.9	0.6	0.3	0.3	0.1	0	0.1	0	0	0	0.3

출처: (최혜영, 2013: 111)

2) 사도직의 위기 : 수도자로서의 고유한 역할 수행의 제약

한국의 여성수도회는 한국 가톨릭교회의 양적 팽창시기와 맞물려 본당과 교회의 기관에 파견되었고 사제와 평신도 중간에 위치하면서 기능적이고 중간관

리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사도직 현장에서 여성 수도자들은 기존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교회 내에서는 교계제도를 바탕으로 한 사제 중심의 조직 구조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교회 내 불평등 문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여성 수도자의 역할과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에 장상연합회와 각 수도회는 쇄신과 식별 작업을 통해 기존의 사도직에 대해 재평가를 하였고 여성 수도자를 가장 필요로 하고 수도회의 카리스마를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도직을 개발하게 되었다.

(1) 기능적 역할에의 동원

<표 5> 한국 가톨릭 여성수도자의 사도직 종사자 현황

분야	1977	1980	1990	1995	2000	2006	2010	2015
전교	337	417	1,599	2,106	2,186	1,978	2,266	2,085
교육	184	194	476	664	612	657	654	661
의료	55	46	580	635	563	584	618	616
사회복지	23	51	456	1,091	1,173	1,660	1,886	1,854
합계	599	708	3,111	4,496	4,534	4,879	5,424	5,216

출처:(최혜영, 2006: 223)와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43차, 48차 정기총회자료 중 '한국여자수도회 현황' 재구성

민주화 운동 시기, 여성 수도자들은 사회참여 활동에 동참하였고 그 당시 개발독재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던 노동자·농민·철거민과 도시빈민들과 함께 하였다. 1980~90년대는 한국교회의 양적 팽창시기로 <표 5>에 나타나듯이 많은 여성 수도자들은 교회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교(성당), 사회복지, 교육, 의료 분야에 파견되었다. 가톨릭신문의 2015년 조사⁷⁴⁾에 따르면

“여성 수도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선교 사목 분야는 전교활동 32.4%, 사회복지기관 24.1%, 교육기관 10.7%, 의료기관 9.4% 순으로 조사됐다.” 여전히 전교와 사회복지 기관의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1980~90년대의 한국 가톨릭교회는 입교자들과 본당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⁷⁵⁾하였으나 사제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고 평신도들의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여성 수도자들은 사제들의 지휘를 받는 ‘사목의 협조자’로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기능적인 면들을 수행하게 되었다. 여성 수도자들이 수행하는 이런 보조적 역할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이며, 여성 수도자들이 사제들과 함께 사도직을 해나가는 경우에 빈번하게 겪게 되는 일이었다.

사회복지 분야는 과거 교회와 수도회에서 외국의 원조를 받아 자비와 애덕을 행하였다면, 1970~80년대에는 정의구현 사제단과 사회정의 문제에 참여하면서 철거민과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동시에 교회 내에 많은 자선기관들 역시 생겨났으며 수녀회도 설립, 운영에 참여하였다. 또한 마더 테레사의 한국 방문⁷⁶⁾ 이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 분야 종사 수녀의 숫자가 급증하는데 이는 문민정부 시기 ‘민간주도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복지 시설을 종교계에 위탁하고 보조금 지급으로 민간부분 특히 종교계의 참여를 적극 유도(강인철, 2003: 77~79)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가톨릭내의 사회복지기관의 증대와 대형화를 촉진하였다. 본당과 마찬가지로 기관에 파견된 여성 수도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설 운영을 하면서 수도회의 카리스마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보다 관리자로서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가기

74)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267972 가톨릭신문 2015년 5월 17일 기사 <현대의 봉헌생활 (5) 한국의 수도회> 최종검색 2018년 10월 14일

75) 1984년도 한국의 성당 숫자는 673개였지만 1998년에는 1,147개로 증가(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홈페이지 통계자료/http://www.cbck.or.kr/bbs/bbs_list.asp?board_id=K7200).

76) 1981, 1982, 1985년 세차례 방문

급급한 현실이었다.

이렇듯 여성수도회는 교회의 양적 팽창기에 맞닿아 교회와 사회의 필요와 외적인 사업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수도회, 수도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과 수도회의 고유한 카리스마의 실현에 장애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수녀들의 신원과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되었고 수도회와 교회 안의 여러 식별과 쇄신 작업을 통해 여성 수도자로서의 고유한 역할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2) 배제와 주변화

박정임은 “주변화는 모든 문화, 종교, 학문기관에서 여자들이 낮은 비율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여성 수도자는 가톨릭교회라는 큰 구조에서 ‘여성은 성직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배제’가 되고 하위구조에서 ‘주변화’가 이루어진다. 특히, 하위구조에서의 주변화는 가부장적 질서, 교회의 사목적 배려로부터 발생한다(박정임, 2005: 2, 4)고 본다.

① 교회의 구조로부터의 배제 : 여성사제 금지와 교계제도

가톨릭교회는 ‘여성 사제직 금지’라는 대명제 하에 남성 사제 중심의 교계 제도가 확립되었고 교회의 대부분의 권력은 사제에게 집중되었다. 이러한 권력의 집중은 가톨릭교회 내에서 성직 중심주의를 낳았고 이것이 교회 내 불평등 문화 형성의 근원이 되었다. 이에 대해 A수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사가 있는 한 신부하고 수녀는 구분이 되는 거야. 성사집행은 우리 가톨릭 내에서 성직자 밖에 못하잖아. 수녀 사제가 나오지 않는 한 동등할 수가

없어. 미사 중에 “이는 내 몸이다.” 말할 때, 위계질서가 딱 잡히는 거야. 넘을 수가 없는 거야.(인터뷰 날짜 2018년 4월 13일)

가톨릭교회 내에서는 여성의 역할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 여성의 사제직 임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여성 사제직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4년 교황 교서 『남성에게만 유보된 사제 서품에 관하여』를 통하여 “교회는 여성에게 사제 서품을 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 교회의 모든 신자들은 이러한 판단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근 진보적 성향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된 후에, 2016년 여자수도회 총원장들의 일반알현에서, 교회 안에서 ‘여성이 의사결정과 성찬의 전례 거행과 설교에서 배제’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교황은 초대 교회에서 여성 부제들의 존재가 있었음을 언급했다. 또한 교황은 ‘역사 안에서의 여성 부제직’이라는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위원회가 설치하였다(이정주, 2017: 98). 이러한 교황의 행보에 대해 많은 이들은 여성 사제직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으나 기자회견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선언대로 여성의 사제 서품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교회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교회는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 특유의 감수성, 직관, 고유한 역량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아직도 여성이 교회 안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함(103항)”을 말하였다. 또한 “직무 사제직은 예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봉사하시고자 쓰시는 하나의 수단(104항)”임을 강조하였다.

교계제도는 교황-주교-사제로 구성된 피라미드 형식의 중앙집권적이고 위계적 관계를 보여주는 교회 조직이다. 가톨릭교회 전체는 이러한 제도화된

권위에 근거하여 조직화됨으로써 동질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가톨릭의 특성은 통일된 지도력과 여론형성, 자원을 동원하는 것에는 유리하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구조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성직주의는 성직자 중심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사제는 능동적이고 지배적인 중추로, 평신도를 수동적이고 보조적인 대중으로 간주(엄재중, 1998: 132~133)”하는 것으로 교회의 권위를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행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신도는 교회와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성직자는 그런 평신도에게 봉사하라고 불림을 받은 것이지 그들 덕을 보라고 불림 받은 게 아니다”라고 질책하였다.

② 가부장적 질서로부터의 주변화

“가부장제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이고 사회·정치·경제적 제도를 통해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 권위주의 체계(우리사회연구학회, 1998: 13)”이며 가족관계에서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베버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체계 전반’을 일컫는 말로 ‘사회 전반에서 연소자 및 여자에 대한 남성 권력을 합법화 및 구조화하는 제도’(류지아, 2010 재인용: 7)”임을 말한다. 또한 가부장제는 사적 영역에서나 공적영역에서나 여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배제하지 않으나 종속적 위치에 놓이게 하는데 가부장제에서 작동하는 억압적 기제는 ‘여성성’, ‘모성성’, ‘여성다움’이다. 그리고 가부장적 문화 안의 여성은 비인격적이고 독립성을 상실한 채 의존적이며 남성의 보호 아래 머물러야 하고 남성이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여성은 능동적·창의적·활동적일 수가 없게 된다.

여성 수도자들은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와 통제에서 벗어나 결혼을 하지 않고 스스로 독신을 택하였고 여성들만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수도회를 이루어 살아간다. 그러나 여성 수도자들은 본당이나 가톨릭 기관에 파견되어 사

제들과 함께 일하면서 다시 가부장적 질서 하에서 통제를 받게 되는데, 수도자들은 이러한 가부장적 문화와 권위의식에 대해 거부감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갈등의 요소가 된다. 이에 대해 A수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가부장제도에 유교사상이 있잖아. 그기에다가 성차별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오랜 문화가 그게 녹여있어 가지고 우리 교회는 유래를 찾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강해.(인터뷰날짜 2018년 4월 13일)

특히 본당은 이러한 가부장적인 불평등한 문화를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구성원의 관계 설정에서 나타난다. 본당에서의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를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의 관계로 설정하고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 관계를 대입시켜 이해하려 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사제는 군림하고 통제하는 아버지, 수도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보조적 역할을 하는 어머니, 평신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의 역할로 관계가 설정된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수도자들은 능동적·창의적·활동적인 모습을 지닐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G 수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본당의 모든 실권, 권한은 주임 신부님에게 있고 그기에 수도자는 종속되어 있는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사도직을... 우리는 얘기하는 사도직이지만 본당의 주임신부님은 사목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사목 안에서의 수도자의 역할이 서포트의 역할인거죠. 신부의 서포트의 역할, 신부가 이 일을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는 거고. 이런 현재의 본당의 이런 시스템은 너무 갑갑하죠. 사실. 그러다보니까 제 자발적으로 하고 사도직도, 제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갑갑하고 답답한 거죠. 교계제도가 어떻

계 보면 교계제도가 그럴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또 열려있는 사람과 사도직을 같이 한다면 또 다를 수도 있죠.(인터뷰 날짜 2017년 10월 16일)

③ 사목적 배려로부터 주변화

여성 수도자들은 교회의 구조와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이미 배제와 주변화를 겪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동안은 필요에 의해 사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교회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여성 수도자들이 기존의 권한과 역할에서 밀려나고 있고 새롭게 역할이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사목적 배려로부터의 주변화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수도자들이 소임을 하고 있는 본당에서는 교구 사제들의 숫자가 급증하였고 또한 평신도들의 성장으로 인해 여성 수도자들의 기능적 역할 수행은 사제와 평신도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 수도자들은 사제와 평신도 사이에서 모호한 위치와 역할 축소를 경험을 하고 있다.

가톨릭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보면 과거 여성 수도자의 역할이 지대했다면 최근에는 교구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사제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박문수, 2013: 69). 기관들이 대형화되고 국가 사회복지 정책의 제도화에 의해 국가의 요구 조건에 의해 획일화되면서 자율성이 축소되었다. 또한 능력과 업적 위주, 일 중심의 기관의 관리와 운영이 우선됨으로 가톨릭 기관으로서의 선명성과 사도직을 통해 수도자의 정체성, 수도회의 고유한 카리스마를 드러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A수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제들에게 우리는 평신도야. 그들은 성직 계급이고 우리는 평신도 계급이야. 그런데 사제들의 보조역할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평신도이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 리더를 한다니까. 그런데 사제들 계급과 같지는 않아. 이런 모호한 상태에서 모호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조직이야. (인터뷰날짜 2018년 4월 13일)

과거 교회와 사회의 요청에 따라 여성 수도자들의 과견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상황은 기존의 역할 수행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에 여성 수도자들을 주변부로 밀어내고 있다. 한편으로 여성수도회 스스로가 수도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고 수도회의 고유한 카리스마를 살리고 직접 투신이 가능한 영역으로 사도직을 전환하기를 바라면서 그 과정을 실행하고 있다.

2. 수도자 역할 재고의 필요성과 역할 전환의 인식

한국 가톨릭 여성수도자들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200주년 사목회의⁷⁷⁾에서 수도자 문제를 다루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교회와 장상연합회, 각 수도회는 기존 사도직 현장에서 수도회의 고유성을 살리고 수도자로서 합당한 역할이 가능한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였다. 이러한 식별과 쇄신 과정은 여성 수도자에게 창립자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과 수도회의 고유한 카리스마를 살려 사도직을 이행 할 것을 제시하였고 또한 시대의 요청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예언자적 역할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여성 수도자들도 이러한 사실들을 깊이 자각하고 있음을 ‘봉헌생활의 해 기념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다. 특히 ‘봉헌생활의 해 기념 조사’에서는 사회참여에 관한 여성 수도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아래의 <표 6>와 <표 7>를 통해 교회와 장상연합회, 수도회 차원

77) 1984년 한국 가톨릭 전래 200주년 기념으로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처음 하느님 백성 전체, 평신도·수도자·성직자들이 함께 모여 ‘전국사목회의’(pastoral council in Korea)를 개최, 민족의 복음화의 목표 선정, 한국 교회의 문제를 논의, 미래 지향적인 선교 대책 수립 함

에서 제기된 여성 수도자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1) 여성 수도자 문제를 다룬 교회문헌

<표 6> 여성 수도자 문제를 다룬 교회문헌

	내용
200주년 사목회의 수도자의안	-수도회 쇄신은 복음과 창립자의 정신에 돌아감을 의미 -복음적인 창립자의 정신을 현실에서 적용하여 실현시킬 방법을 연구할 것과 문화와 시대적 흐름에 민감할 것을 요구 -수도회의 고유한 카리스마 보존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수도회의 과제와 책임
1994년 제9차 세계주교 대의원회의	-의제 : 교회와 세상 안에서의 축성생활 ⁷⁸⁾ 과 그 역할 -의제선정 배경: 성소감소로 인한 위기에 직면한 수도생활의 전면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위해. 세속화와 문화의 위기, 도덕적 가치들의 약화 등의 사회적 현실에 직면하여 수도생활의 예언적 성격이 더 명확하게 정의 내려져야 할 필요성 제기 -수도자는 교회의 생명과 성덕에 속하는 신분으로 치유적 성격을 지닌 예언적 역할과 사명을 지니고 있음 -창립자의 카리스마는 수도회원들의 삶 안에서 지속되어야 하는 유산이며 시대와 문화 속에서 늘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함
교황 권고 '봉헌생활'	-봉헌된 사람들은 자기 목숨까지도 걸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예언자적 용기를 가지고 어디에서나 진리를 증언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음 -예언은 선포와 생활의 일치에서 특별한 설득력을 가짐
교구 시노드 ⁷⁹⁾	
대구 1차 (1997년 ~ 1999년)	-급격한 사회변화 안에서 수도회의 고유한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수도회 고유한 카리스마가 기존 사도직에서 뚜렷이 드러나도록 사도직의 내실화 필요 -수녀들의 성당에서의 상주를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고 성당에서 전통적 역할(교육, 방문, 상담 등)과 성소자 육성의 중요성 강조 : 지금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음 -시노드 준비 설문조사, 사제와 수도자의 관계 : 수도자는 사제들의 공동협력자로 인식, 사제는 수도자를 보조자로 인식 ⁸⁰⁾ , 성당 내에서의 사제와 수도자 간의 갈등의 원인

<p>인천 (1996년 ~ 2000년)</p>	<p>-수도생활은 쇠신과 ‘예언자적 비판’의 기능을 하는 생활양식, 수도자는 수도회의 설립 정신에 충실하고 각자에게 영감을 주시는 성령에 충실하여 변형시킬 창조적 노력 필요(8항) -본당 사제와의 관계, “상호 존중의 관계, 예속이 아니라 독립된 관계여야 하며 정의롭지 않은 요청에 대해 단호한 태도 요구(9항) -수도자의 본당 사도직 심화 방안: 여성 수도자로서의 사도적 사명 강화와 증대, 여성에게만 부여해 주신 은총의 힘이 교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기회와 여건이 주어져야 함(제3장 4,5항)</p>
<p>서울 (2000년 ~ 2003년)</p>	<p>-수도회의 카리스마와 고유 영성에 대한 연구, 현 시대에 수도회의 카리스마와 고유 영성을 실현시킬 구체적인 방법과 모색(교서 6항) -수도자는 복음의 빛에 따라 교회와 세상의 요구와 필요에 응답하고 ‘시대의 예언자가 되길 바람(교서 20항)</p>

2) 여성 수도자 문제를 다룬 수도회와 장상연합회 문헌

<표 7> 여성 수도자 문제를 다룬 수도회와 장상연합회 문헌

<p>방인 수도회 사도직 식별⁸¹⁾</p>	<p>-200주년 사목회의 후 ‘3개 방인 수도회 설립은사 식별 워크숍⁸²⁾’ 개최 -3개의 수녀회⁸³⁾의 사도직이 성당, 사회복지, 교육, 병원의 보편 사도직에 집중하고 있어 각자의 다른 카리스마를 분별할 수 없음을 발견 -교회의 양적 성장과 요청에 응답, 일 중심적인 삶의 결과 -S수도회는 전회원 대상 ‘카리스마 식별’과 ‘수도회 식별’ 피정 실시, 수도회 명칭을 바꾸고 중·고등학교를 교구에 무상으로 양도, 병원 또한 교구에 양도하거나 자선병원으로 전환 -타 수도회의 사도직 평가 작업과 정리에 영향을 미침</p>
<p>장상연합회 설문조사⁸⁴⁾</p>	

78) 축성생활은 봉헌생활, 수도생활과 함께 사용된다.

79) 시노드를 개최한 부산, 대구, 인천, 서울, 수원, 청주, 대전교구 중 3개 교구만 수도자 의제를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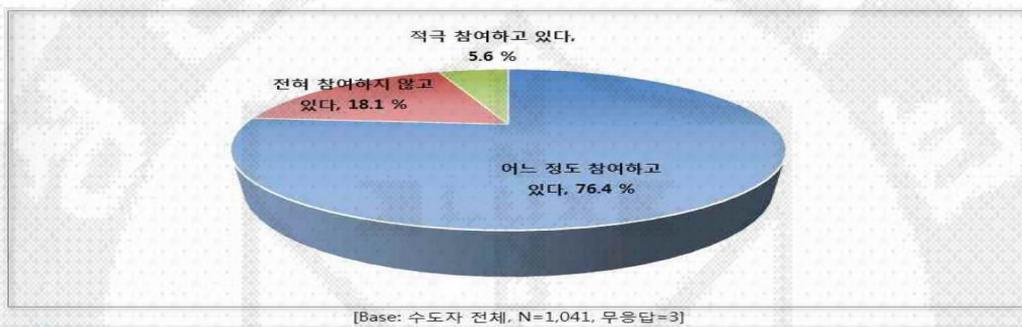
80) 대구대교구 현황과 전망(2차)-시노드를 위한 설문조사 보고서

1992년 ~ 199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2년 ‘<u>수녀님의 의견을 듣습니다.</u>’ 1993년 ‘<u>수녀들의 사도직활동에 대한 성직자의 의식조사</u>’ -수도자들의 신원 의식 부족과 정체성의 위기 수도생활에 대한 본질과 역할에 대한 숙고 필요
199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u>본당 사도직 여성 수도자 실태 조사</u>’ (사제, 수도자 설문) -성당 내의 수도자의 역할 : 상담, 가정방문, 예비자 교육 / 피해야 할 역할 : 제대 꽃꽂이, 성가대 지도, 성가반주 -사제들의 희망 : 본당 지역 내의 노약자와 냉담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방문하는 일 -본당에 만족 못하는 이유: 자율성 부족, 역할 불분명, -교회 내 바람직한 사목 방향 : 사제 중심적 사목에서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의논하고 결정 -사제들의 희망하는 수도자 상: 기도하는 모습, 존재 자체의 필요성,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습 (수동적, 지시 따르는 모습)
199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u>한국 여자 수도회 성소자 및 수도자 실태 조사</u>’ -여성 수도자의 소명을 재인식과 정체성 심화를 통해 예언자적 역할 수행하고자 실시 -우선순위의 사도직 : 사회복지, 빈민 사목 포기해야 할 사도직: 본당, 병원 -본당포기 이유: 수도자 불필요, 시대요구에 부적합, 카리스마에 부합하지 않음, 사제와의 관계에서 순종 요구 (면담: 본당의 중요성- 종교교육의 장, 성소사목의 장, 사회복지 후원자와 자원봉사의 동원, 다양한 계층의 만남의 장) -병원포기 이유: 전문가 경영필요, 영리 목적 사업, 시대적 요구에 부적합, 재정적 부담 -사회복지: 사회구조 변혁을 위한 사목에 관심 가지길 권고 기관의 대형화와 관료화에 따른 위험 경고 대형화와 고급화에 따른 가난한 이웃들의 배제와 소외에 대한 우려 제기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u>봉헌생활의 해85</u>’ 기념 연구 심포지엄 : ‘한국 여자 수도회 봉헌생활 현실과 쇄신 방향’ 조사 -여성 수도자들의 현실 진단, 미래 비전과 실천 가능성 모색 -여성 수도자가 한국교회에 기여한 것: 다양한 사도직 활동을 통하여 교회를 풍요롭게 함 (47.9%) -수도자들이 한국교회에 끼친 부정적 영향: 성직자의 보조자 역할을 함으로써 성직자 중심의 교회문화에 일조(41.5%) 권위적인 모습, 평신도 위에서 군림(20.5%)-중간관리자 역할 -미래 수도자 성장위한 준비: 사도직 활동을 식별하여 수도자의

신원과 적성에 맞게 재편(61.3%) -사제와 주요 갈등 사유: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태도(49.7%) -여성 수도자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문항은 아래(3)와 같다.
--

3) 2015년 ‘봉헌생활의 해’ 기념 조사에서 사회참여 관련 내용

[그림 4] 사회문제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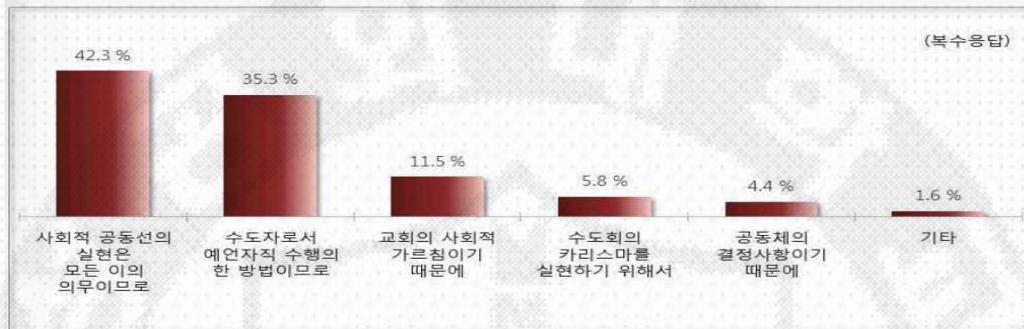
위의 [그림 4]에 따르면 여성 수도자들은 사회문제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다’ 76.4%이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 5.6%인데 참여 비율은 높으나 적극적인 참여 비율이 낮은 것은 수도자들의 사회참여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문제라고 보인다.

아래 [그림 5]을 따르면, 여성 수도자들은 사회문제 참여 이유를 ‘사회적 공동선의 실현은 모든 이의 의무’로 ‘수도자로서 예언자직 수행의 한 방법’

- 81) 차순향외, 1994 재구성, 방인 수도회는 한국에서 창립된 수도회, 교구설립 수도회
- 82) 1986년, 1987년
- 83) 방인 수녀회 중 서울교구 내에 있고 가장 많은 회원들을 갖고 있는 세 수녀회,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성가소비녀회, 한국순교복자수녀회
- 84) 각 년도마다 언급된 조사 결과 보고서 재구성
- 85) “수도자 관련 내용이 담긴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과 수도 생활 쇄신에 관한 교령 「완전한 사랑」(Perfectae Caritatis) 반포 50주년을 맞이하여 ‘봉헌 생활의 해’가 선포되었다. 봉헌 생활의 해는 2014년 대림 제1주일인 11월 30일에 시작하여 2016년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 까지였다.

으로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따르고 ‘수도회의 카리스마를 실현’ 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림 5] 사회문제 참여 이유



[Base: 사회현실 문제에 참여하고 있는 수도자, N=962]

[그림 6] 가장 관심 갖는 사회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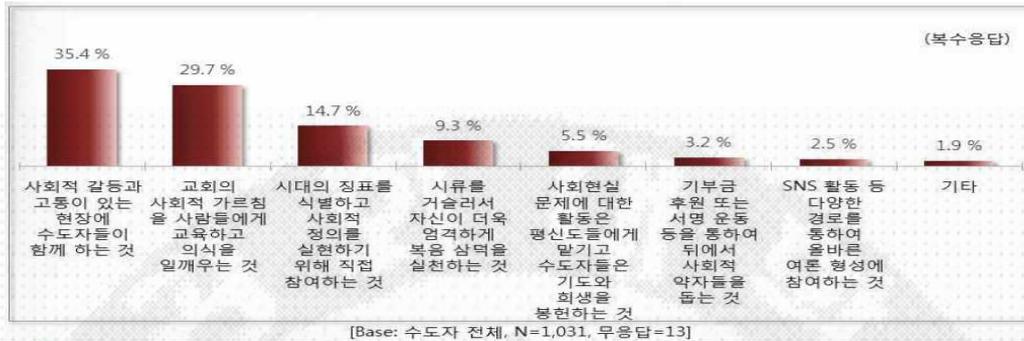


[Base: 수도자 전체, N=1,042, 무응답=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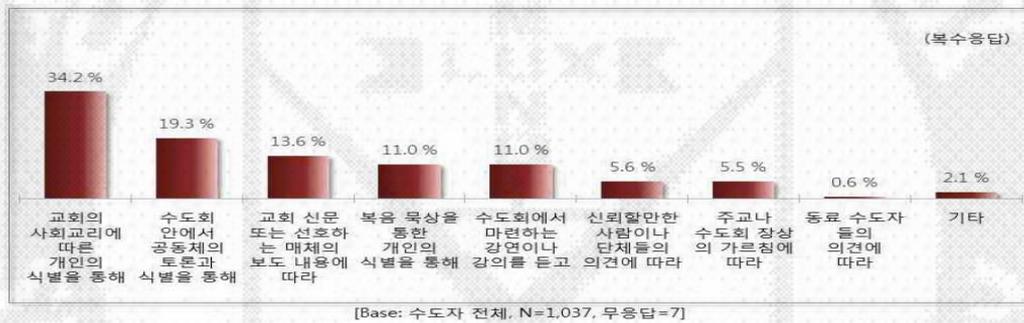
여성 수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회문제는 위의 [그림 6]에 나타나듯이 ‘가난한 이들’이 19.8%이고 그 다음은 ‘사회정의 실현’이 그 다음으로 19.5%이다.

아래 [그림 7]에 따르면 여성 수도자들 사회현실 문제에 참여하는 적절한 방법에 대해 ‘사회적 갈등과 고통이 있는 현장에 수도자들이 함께 하는 것’과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의식을 일깨우는 것’, ‘시대의 징표를 식별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는 것’ 순으로 응답했다.

[그림 7] 수도자로서 사회현실 문제에 참여하는 적절한 방법



[그림 8] 사회문제 식별 방법



위의 [그림 8]에 따르면 여성 수도자들은 사회문제를 ‘교회의 사회교리에 따른 개인의 식별을 통해’ 그리고 ‘수도회 안에서 공동체의 토론과 식별을 통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V. 여성 수도자의 사회참여 : JPIC 활동 확대

여성 수도자들은 수도회와 사도직에의 위기와 교회와 장상연합회, 수도회 내

의 쇄신과 식별 작업을 통해 수도회의 본질적 사명은 ‘예언자적 역할’임을 인식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기존의 사도직이 수도자의 역할에 맞는 사도직인지에 관한 검증 작업을 단행하였고 이 시대적 요청에 꼭 필요한 사도직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하였다. 2008년 이후의 약 10년간, 한국 사회는 심각한 정치적·사회적 문제가 연속적으로 등장하였고 시민사회 진영의 문제제기와 이에 대응하는 정권의 탄압과 폭력이 심해졌다. 이러한 시대 상황 안에서 가톨릭교회와 여성 수도자들은 이 시대의 사도직은 사회참여, JPIC 활동임을 자각하였다. 여성 수도자의 JPIC 활동의 확대는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이는 수도회간 네트워크 강화와 각 수도회 내 조직화의 결과였다.

1. 국내 정치 환경의 변화 : 보수·권위주의 정권 시기

한국사회는 1987년 6.29 선언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가 일부 이루어졌지만 제도적인 민주화는 답보상태에 놓였다. 10년의 진보·개혁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한국 사회 안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많은 변화들이 초래되었고 정부의 억압이 완화되면서 시민사회⁸⁶⁾의 자율성은 확대되었다. 시민사회 안에는 다양한 결사체들이 만들어지고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였고 자본주의에 대해 모순과 폭력에 맞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여 정책으로 수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이명박 정권 즉 보수·권위주의적 정권의 집권으로 인해 무너졌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은 취임 초기부터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소홀히 하고 실패하면서 ‘촛불시위’에 맞닥뜨리게 되었고 이후의 행보 역시 불통과 억압으로 점철되었다. 4대강 사업, 용산 참사, 쌍용차 사태, 밀양,

86) 공동체의 가치와 시민의 자율성을 기본으로 사회 공익과 공동선을 추구한다. 인권, 환경, 평화, 문화 등과 같은 탈물질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강정 등 사회 여러 곳에서 지역주민, 노동자들, 시민단체들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였고 그들을 억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다루면서 갈등을 증폭시켰다. 특히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시민단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무지를 곳곳에서 드러내었으며 감시와 억압을 통해 시민사회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시민단체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한편 박근혜 정권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 민주화, 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서 집권하였으나 이러한 주요 공약들은 정권 출범 직후에 대부분이 폐기 되었다. 박근혜 정권은 출범 시기부터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 개입, 정당해산, 사법부와 언론 장악, 집회의 자유 억압, 공안 기관 확대 등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은 여러 사회문제들을 야기 시켰다.

세월호사건, 국정화교과서, 백남기 농민 사건, 위안부 합의문제 등과 함께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 문화체육부의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 및 탄압, 국가 정체성의 상징에 대한 집착은 전체주의적 경향을 보여주었고 박정희 유신 정권을 연상시켰다. 결국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촛불시위로 이어져 탄핵되는 초유의 사건으로 정권은 막을 내렸다.

2. 장상연합회의 조직적 특성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는 전체 여성 수도회의 연합기구로서 수도권 대표자들의 모임이다. 한국사회의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우선 장상연합회 차원에서 공동의 입장을 표명하고 공식적으로 비판적 견해를 발표한다. 특히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장상연합회 내의 생명평화 분과 전담자를 중심으로 공

식적인 대응과 구체적인 연대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여성 수도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장상연합회의 조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 기구 조직

장상연합회는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가톨릭 여성수도회의 최고 장상⁸⁷⁾들로 이루어진 연합 단체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세계 각국의 교회는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사목적 활동을 전개하고, 특수한 방법으로 하느님과 교회에 봉사하는데 자신을 봉헌한 사람들의 영적진보를 위하여 수도회 장상연합회를 구성하도록 권장하였다(가톨릭대사전). 이에 한국에서는 1962년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1969년 3월 28일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회칙 인가를 받았다⁸⁸⁾. 장상연합회의 목적⁸⁹⁾은 교황청과의 연관 강화, 교회의 정신 이해, 수녀들의 영성생활 촉진, 사도직 수행의 공통의 문제 해결, 각 회의 고유한 목적을 저해함 없이 수도회간 친목과 사랑의 일치 도모, 주교단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 등이다.

장상연합회는 일 년에 한번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3년 임기의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사무국은 회장과 부회장이 속한 수도회에서 각 1명씩 파견하고 생명평화분과 전담자 1명이 있다. 장상연합회 산하에는 분과위원회와 자문기구, 부설기구를 두고 있다. 12개의 분과위원회에 수녀들은 활동 분야에 따라 가입하고 분과 위원장을 둔다. 분과는 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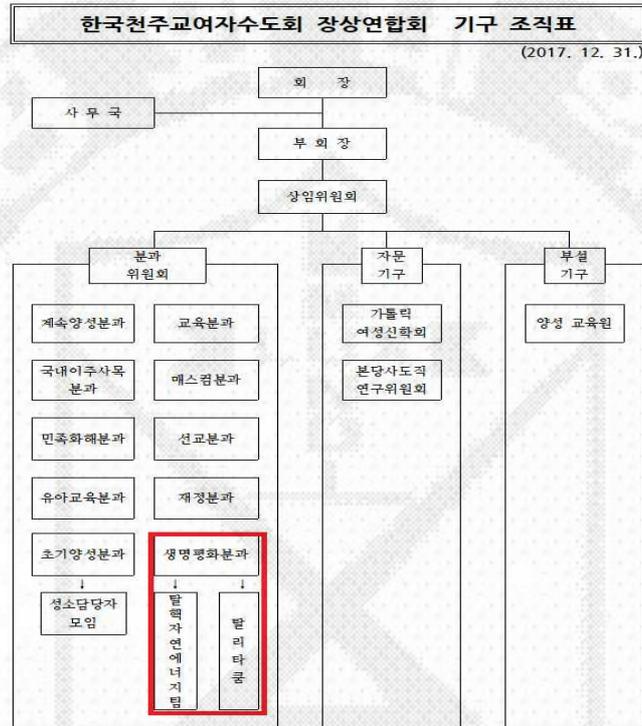
87) 교회에서 장상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 권위를 가진 인물을 통칭하는 말로, 교회의 위계제도에 따라 ‘교회의 장상(ecclesiastical superior)’과 ‘수도회 장상(religious superior)’의 2종류가 있다(가톨릭대사전).

88) <http://www.nuns.or.kr/> 장상연합회 홈페이지, 장상연합회 연역 게시판

89) 위의 장상연합회 홈페이지, 장상연합회 소개 게시판

적인 회합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필요한 경우 총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이와 같은 장상연합회의 조직⁹⁰⁾은 아래의 [그림 9]와 같다.

[그림 9]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기구 조직표



출처: 장상연합회 홈페이지 '기구조직표' 91)

장상연합회 총회에서는 3년마다 열리는 '세계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이하 UISG)⁹²⁾' 총회에서 나온 주제에 맞춰 매년 작은 주제를 정하고 구체적 실천 사항을 결정⁹³⁾하는데, 이를 통해 현 시대에서 수도자로서 살아가야 할

90) 위의 장상연합회 홈페이지, 장상연합회 소개 게시판

91) <http://www.nuns.or.kr/> 장상연합회 홈페이지/ 기구 조직표 게시판

92) UISG(Union of International Superiors General)는 1965년 바티칸 공의회의 종료와 더불어 출범된 교황청립 기구로서 수도자성성(CICLSAL)에 속하는 단체, UISG는 사도직활동을 하는 여자수도회와 사도적 생활단의 총장들로 구성된다.

방향성과 실천사항을 정하게 된다. 장상연합회는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각 수도회는 대체로 결정사항을 따르게 된다. 또한 총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토의, 결정하고 사무국과 분과, 자문기구, 부설기구의 활동 보고를 받고, 각 수도회는 전년도 결의문이 따른 실천 사항을 보고한다.

장상연합회는 수도회, 교황청과 지역교회 간 협력뿐만 아니라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사회문제 그리고 고통 받는 이들과 가난한 이들과의 국내·외 연대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세상 안에서 예언적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생명평화분과

(1) 생명평화분과의 설립과 변천

‘생명평화분과’는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정의와 평화를 구현하며 공동선을 실현하는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회칙 제2조). 생명평화분과의 전신인 ‘사회사목분과’는 1998년 제31차 장상연합회 정기총회의 결정 사항으로 시작하였다. 이 시기 한국 사회는 IMF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고 세계화와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심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안에서 당시 노동·빈민 현장에서 봉사해 온 수녀들이 중심이 되어 이들의 아픔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현실적인 응답을 주고 ‘복음적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사회사목분과’를 개설하였다. (김영미, 2013: 58)

제33차 정기총회(2000년)에서는 사회사목분과의 성격에 ‘정의·평화·환경’을

93)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48> 가톨릭뉴스지금여기, 2018년 11월 9일 기사 <여장연, 동북아 평화 위한 활동 다짐>, 최종검색 2018년 11월 9일

포함하고 새로운 기구를 별도로 두지 않고 분과의 명칭도 정의·평화·환경에 관련하여 바꾸도록 결정⁹⁴⁾하였다. 2005년에는 ‘노동사목수녀모임’ 회원들이 기존 모임을 해체하고 사회사목 활동에 결합하기로 하였다⁹⁵⁾.

한편, 2012년 사회사목분과는 ‘생명평화분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사회사목 활동에 사회복지, 여성분과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사회사목분과는 전담자 배치에 대한 안건을 장상연합회 제45차 정기총회(2012년)에 상정했고 결정에 따라 2013년부터 전담자가 배치되었다. 그리고 사회사목분과 회칙은 2010년 정기총회에서의 승인을 거쳐 2016년 10월 제49차 정기총회에서 개정⁹⁶⁾되었다.

(2) 생명평화분과 내 소위원회

① 탈핵자연에너지팀 결성

‘탈핵자연에너지팀’은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원전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를 계기로 결성되었다. 이 시기 한국의 원전⁹⁷⁾은 개수가 많고 노후 원전이 계속 가동 중인데다가 신규 원전을 계속 건설 중인 상태였다. 게다가 대도시 주변에 밀집해 있어 원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제5차 ‘세계총장연합회 한일대륙별 모임·정기총회’⁹⁸⁾(이하 UISG 한일 총

94)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2000, “제33차 정기총회 결과보고 자료집”, 38쪽

95)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2012, “제45차 정기총회 자료집”, 203

96) 명칭변경 관련, 2018년 세부사항 개정작업 중에 있다.

97) 가동중 원전 24기, 영구폐쇄원전 1기, 건설중인 원전 5기

<http://www.kaif.or.kr/?c=nws&s=5>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홈페이지, <국내원전 현황>, 검색 2018년 7월 27

98) http://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230297

가톨릭신문 2011년 9월 11일 기사 <세계총장연합회 한일대륙별 모임·정기총회: 핵문제 해결 구체적 방안 논의> 최종 검색 2018년 7월 26일

회) 안전토의에서 수도자의 입장에서 핵문제를 검토하고 양국의 의견을 종합해 실행 사항을 결정하였다.

장상연합회 제44차 정기총회(2011년)에서는 핵에 대한 의식 교육 및 생활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핵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상임위원회에 위임하였다. 총회 결과에 따라 사회사목분과(현재 생명평화분과) 내에 ‘탈핵자연에너지팀’을 결성하였고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활동내용⁹⁹⁾은 분과 위원들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월례 모임과 수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전과 탈핵 관련 강좌 개설, 노후원전 폐쇄 청원 서명 운동과 리플렛 제작과 탈핵 홍보, 그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관한 교육 등이다. 또한 탈핵희망도보순례와 일본 후쿠시마 탈핵 단체들과의 연대, 국내 원전지역과 송전탑 건설지역(밀양) 그리고 신규 원전지역(삼척, 울진) 주민들과의 연대활동을 실시하였다.

2016년 기준 탈핵자연에너지팀은 6개 수도회 7명의 여성 수도자들이 등록되어 있다¹⁰⁰⁾.

② 탈리타쿰 코리아¹⁰¹⁾

‘탈리타쿰¹⁰²⁾’은 2009년 UISG 총회에서 반인신매매 국제네트워크 연대기구로 결성되었고, 2013년 5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교황청 산하기구로 승인되었으며 교황은 대륙별 모임 결성을 권유¹⁰³⁾하였다. 탈리타쿰은 2017년 현재 70여개의 나라, 600여명의 수도자들이 평신도들과 함께 일하고 있

99) 장상연합회 총회자료집과 생명평화분과 회의 자료집에서 발췌

100)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2016, “제49차 정기총회 결과자료집” 71쪽

101) 교황은 인신매매를 인간이 상품이 되어 팔리는 현대의 노예제도라고 설명한다.

102)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라는 뜻으로, 신약성경의 마르코 복음 5장 41절에 등장한다.

103)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2018년, ‘반인신매매 캠페인 리플렛(탈리타쿰 코리아)’

다¹⁰⁴). 2013년 11월 태국에서 아시아지역 네트워크가 구성되었으며 한국의 탈리타쿰 위원회는 2014년 2월에 시작¹⁰⁵)되었으며 장상연합회 제50차 정기총회(2017년)에서 ‘탈리타쿰 코리아’로 개칭되어 그 지침이 인준되었다.

2016년 기준 ‘탈리타쿰 코리아’에는 13개 수도회, 18명의 수녀가 참여¹⁰⁶)하여 인신매매에 대한 교육과 실태 나눔을 하며 여자 수도회에서는 여성과 가출청소년 쉼터(소나의 집, 막달레나의 집)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 매년 인신매매 반대 캠페인을 펼치는데 ‘인신매매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사람은 얼마인가요?’라는 표어를 만들어 내걸고 반인신매매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인신매매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¹⁰⁷).

3. 생명평화분과 조직력의 성장과 확장

1) 전담자의 배치

이명박 정권 시기부터 한국 사회 안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종교계 특히 장상연합회 내 사회사목분과(이후 생명평화분과)의 사회참여에 대한 요구는 급증하였다. 그리고 요즘의 사회문제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산물이기에 정의·인권·평화·환경 등의 문제가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초국가적 사안이다. 그렇기에 시민운동 단체들의 국제적 연대는 필수이고

104)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2017년, ‘반인신매매 캠페인 리플렛(탈리타쿰 코리아)’

105) 위의 2018년 ‘반인신매매 캠페인 리플렛(탈리타쿰 코리아)’

106)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2016, “제49차 정기총회 결과보고 자료집”, 71쪽

107) http://www.cpbk.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696070&path=201709 가톨릭평화신문 2017년 9월 24일 기사, <장상연 생명분과 탈리타쿰위원회 반 인신매매 캠페인 펼쳐>, 최종검색 2018년 7월 8일

교회 내의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의 연대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사회문제에 연대하기 위해서는 활동가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활동범위가 이전과는 달리 넓어졌다.

사회사목분과 소속 여성 수도자들은 사회참여에 관심이 많은 소수의 수녀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그들은 수도회 내 사도직을 하면서 JPIC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기에 연대자로서 위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회문제들이 대두되면서 분과위원들은 이 많은 사안들에 대해 연대활동을 제대로 해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장상연합회 45차 정기총회에 ‘생명평화분과 내 전담자 배치’에 관한 안건이 상정¹⁰⁸⁾되어 결정되었다.

생명평화분과의 첫 전담자로 파견된 E수녀는 전담자 배치 요구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사목분과에서 생명평화 전담자 즉 JPIC 전담자를 내게 된 배경에는 이명박근혜정권을 거치면서 너무나 많은 사회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에요. 소고기파동부터 시작하여 4대강사업, 쌍용자동차 해고사태, 밀양 송전탑, 제주해군기지 등 생명이 파괴되고 죽음의 문화가 우리들안에 들어와 잠식하는 것에 저항의 목소리를 낸 것이죠. 우리들이 저항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것은 어려운 곳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연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러다보니 누군가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조직해내고 장상연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조직적으로 움직일 누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내부 안에서 논의가 된 것을 장상연 총회에 안건을 올려서 전담자를 두게 된 것이죠. 시대적 요청이랄까?(인터뷰 날짜 2018년 4월 20일)

108)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2012, “제45차 정기총회 자료집”, 200쪽

생명평화분과 전담자는 2013년부터 장상연합회 사무국에 배치되었고 사무국과 긴밀히 연계하여 장상연합회를 대표해 JPIC 활동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전담자의 임기는 3년으로 2회기 운영하고 평가를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¹⁰⁹⁾하도록 하였는데, 2018년 장상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지속시키기로 결정하였다.

2) 외부와의 연대 및 네트워크 강화

외부와의 연대에는 시민단체 보다는 가톨릭교회 내 사회참여 활동 단체와 주로 이루어진다. 가톨릭교회 내의 단체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평신도 단체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¹¹⁰⁾ 그리고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산하에는 15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남녀 수도회 정의평화 위원회¹¹¹⁾, 노동사목 위원회¹¹²⁾가 있다. 이 세 그룹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연대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되면 산하 단체 또는 연관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생명평화분과도 이런 방식의 요청에 의해 연대에 참여한다.

생명평화분과의 연대 결정과 성명서의 발표는 우선 장상연합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 장상연합회 전체 차원과 생명평화분과 차원의 대응으로 나뉘인다. 분과차원의 연대인 경우 남자수도회 정

109)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2012, “제45차 정기총회 결과 보고 자료”, 22쪽

110) 가톨릭농민회,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우리신학연구소, 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 인권위원회,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 가톨릭 노동장년회, 가톨릭 평화공동체와 개인 자격의 평신도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자회의 자료).

111) 남자수도회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위원장, 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위원장

112) 부산교구 노동사목, 인천교구노동사목, 서울교구노동사목, 남자수도회노동사목
(http://www.cbck.or.kr/page/committee_view.asp?p_code=k2520&idx=200131/주교회의 홈페이지 정의평화위원회)

의평화환경위원회와 함께 협력하여 대응을 하게 된다.

한국 가톨릭교회 안에는 상시 연대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탈핵에너지 천주교 연대’와 ‘천주교 창조질서보존연대¹¹³⁾’이다. 이들 단체는 가톨릭전체의 공동대응과 연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가톨릭교회 내 단체와 관심 있는 개인들이 연합하여 구성하였다. 이 두 단체는 자연 생태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천주교 창조질서보존연대는 4대강 반대 활동과 함께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이후 탈핵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고 있다. 탈핵천주교연대¹¹⁴⁾는 정부의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비판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확산 노력을 결의하였다. 탈핵천주교연대는 원전 신규 후보지인 삼척과 울진 그리고 노후 원전 지역인 월성과 고리 지역의 시민단체와 활동 사제, 수도자들과 연대 활동을 펼쳤다. 제주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을 위해서 ‘제주평화의 섬 실현 천주교 연대¹¹⁵⁾’를 구성하였고 제주교구와 강정마을 반대 대책위와 협력하였다.

생명평화분과는 위의 가톨릭 조직과 연대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사회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적 가치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전제가 있기에 가톨릭 내부의 연대활동에는 적극적이나 일반 시민단체와의 교류와 연대 활동은 미약한 편이다. 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연대는 1995년부터 시작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 참여하는

113) 이 단체는 2002년 “환경사제모임”으로 시작되었다가 지금의 명칭으로 됨,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인천교구 환경노동사목위원회,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환경분과,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환경분과,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환경분과, 바오로 수도회, 예수 고난회, 가톨릭환경연대, 나눔플러스, 마중물, 참여협동조합, 곰네들, 우리농, 등이 참가하고 있다(양기석, 공생공빈밀알 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ggma1.com/bbs/board.php?bo_table=menu_8&wr_id=50)

114) 2015년 9월 14일 영덕서 출범, 탈핵 운동 대중화, 핵발전소로 인해 고통 받는 모든 지역과 구체적 연대, 탈핵 염원 종교인·시민사회·지역민과 활동 연대, 에너지 전환과 자립 실현 공동체 운동 지원을 결의

115) 전국 15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군중교구 제외한 모든 교구),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이 참여했다.

것이 거의 유일하다. 이 연대는 장상연합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매주 담당 수도회를 정해 집회에 참석토록 한다.

생명평화분과는 전담자 배치 이후 각 수도회에 현장관련 소식과 연대요청을 빠르게 전달하고 여성수도자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생명평화분과와 각 수도회 간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했다. 전담자가 배치된 후 처음 개최된 생명평화분과 정기회의에서 “전국의 사회현안 현장 목록 등을 전국에 있는 수녀들에게 알려 언제든 연대하고 미사 봉헌 할 수 있도록 하자. 적극적 알림이 필요하고 네트워크가 중요하다¹¹⁶⁾”는 발언이 있었다.

수도회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는 우선 생명평화분과 활성화가 필요했고 이에 분과는 각 수도회에 여성 수도자들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생명평화분과는 ‘생명, 평화분과위원 파견 요청의 건’이라는 장상연합회 공문¹¹⁷⁾을 각 수도회에 발송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대의 요청으로 많은 현안과 사회적 이슈로 말미암아 활동이 필요로 하게 되었으나 활동 할 수 있는 수녀님들이 부족한 상태이기에 수녀님들을 추천 해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파견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정기적인 모임과 교육,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생명, 평화분과에 수녀님들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도회 간 JPIC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각 수도회가 JPIC 담당자를 정해 생명평화분과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를 통해 전국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이는 각 수도회의 관구 또는 지부의 본원 및 본원¹¹⁸⁾이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16) 생명평화분과 2013년 제1차 정기회의 회의록(2013년 3월 14일)

117)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공문, 생명평화: 제 2013-001

118) 관구와 지부는 수도회의 행정 단위로, 본원은 행정의 중심이 되는 곳, 본원은 각 지역

2013년 제2차 생명평화분과 회의에서, 위원들은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아이디어 및 각 수도권 활동가 양성에 대한 의견¹¹⁹⁾’을 토의를 하였고 장상연합회 총회에 ‘각 수도권 내 분과의 설치와 담당자 배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위원들은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녀들을 찾아내어 그들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관심을 촉구하고 활동을 분담할 것을 결정하였다.

장상연합회 제46차 정기총회에서는 ‘생명평화분과와 함께 각 수도권과 네트워크 형성 건’이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¹²⁰⁾.

각 수도권 차원에서도 관련 사안을 다루어줄 (예를 들어 각 수도권 JPIC 또는 정평) 담당자와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한다. 전담 생명평화분과가 있어 많은 사안에 연대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 함께 연대해주지 않으면 어렵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모든 수도권에 공문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담당자와 연계할 수 있고, 생명평화 분과의 위원이 부족함에서 오는 활동의 한계를 좀 더 보강할 수 있다.

이 안건으로 인해 이 총회의에서 각 수도권은 담당자 명단을 제출하였고 담당자가 없는 수도권은 담당자를 선정한 후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총회 후의 가진 분과 정기 회의록에 따르면 “논의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우선 각 수도권에서 명단을 보내주기로 하였으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¹²¹⁾”로 기록하고 있다. 이후 장상연합회의 공문¹²²⁾을 통해서도 각 수도

에 산재한 사도직을 위한 공동체이다.

119) 생명평화분과 2013년 제2차 정기회의 회의록 (2013년 5월 9일)

120)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2013, ‘제46차 정기총회 자료집’, 124쪽

121) 생명평화분과 2013년 제5차 정기회의록 (2013년 11월 20일)

122)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공문, 장상연: 제2013-049

회의 담당자 선정과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공문에는 담당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다.

담당자의 역할은 정보공유(소속 수도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관련사항을 책임지고 전달)와 수도회와 수도회간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2014년 생명평화분과 제1차 정기회의 회의록에는 장상연합회 총회 이후 25군데의 수녀회의 담당자로 부터 연락이 왔음을 밝혔으나 <표 22>와는 다르다.

‘생명을 위해 세계적인 연대짜기’라는 제20차 UISG 총회 주제에 따라, 장상연합회 49차 정기총회에서는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위해 수도회간 경계를 넘어 연대하기’를 결의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수도자들은 수도회 간 경계를 넘어 자신들의 안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변방 사도직’을 모색하고 탈리타쿰 코리아의 ‘실천적 연대’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둘째, 여성 수도자들은 생명으로 향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고 그것을 통해 창조질서 회복에 투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평신도와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사회정의와 공동선을 실천하기로 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수도회는 ‘JPIC 담당자’를 배치할 것을 결의¹²³⁾하였다. 담당자의 배치는 수도회 내 JPIC 사도직을 개설하고 수도회를 대표해 JPIC 활동에 전적으로 투신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수도회 내에 담당자를 배치하는 이전까지 생명평화분과가 주도하여 공문을 발송하고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정도였고 그 효과가 미미하였다. 이후 장상연합회 정기총회에서 담당자 배치가 각 수도회 실천 사항으로 결의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123)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2016, ‘제49차 정기총회 결과보고 자료집’, 4쪽

<표 8>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위원 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개	8개	3개	17개	22개

출처: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2018년, ‘운영 및 행사 보고서’

<표 8>는 2013년 생명평화분과 전담자 배치된 이후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위원들의 숫자이고 이 위원들은 수도회를 대표해 활동을 한다. 2015년은 생명평화분과의 전담자가 잠시 공식인 상대였기에 회의 운영과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활동 인원이 확연히 감소하였다. 2016년 이후 숫자가 이전에 비해 급증하는데 이 시기는 생명평화분과에 두 번째 전담자가 파견되었고 장상연합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각 수도회들이 비록 이중 사도직¹²⁴⁾이긴 하나 수도회 내 JPIC 담당자를 배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보자면, 장상연합회는 각 수도회 대해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앞으나 그 결정 사항이 각 수도회의 정책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의 수도회도 이와 같은 장상연합회의 결정에 따라 JPIC 사도직을 개설하고 전담자를 배치하였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한국에 주재하면서 장상연합회에 가입한 수도회는 109개(준회원 수도회 2개)이고 그 중 22개 수도회가 생명평화분과에 가입하였다. 이 숫자는 비록 장상연합회에 가입한 수도회에 비해서는 적은 편에 속하지만 2016년에서야 장상연합회가 총회에서 각 수도회 내 전담자를 배치할 것을 의결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큰 성과로 볼 수 있고 계속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124) JPIC 전담과 더불어 다른 사도직을 겸하고 있음.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공문, 생명평화 제 2018-01, 첨부자료에 언급되어 있다.

3) 정보공유

최근 스마트폰과 SNS의 보급 및 활용으로 인해 정보에 접근하기가 훨씬 용이해졌다. 이에 각 수도회와 수도권 내부의 정보공유는 공문 형식의 전통적인 방법과 함께 스마트폰과 SNS를 이용한 정보 전달 체계를 함께 이용한다. 이를 통해 각 수도회와 수도권 내 회원들에게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고 많은 이들이 정보에 접근하도록 한다. 이전에는 정보의 전달이 장상연합회 공문을 통해 이루어졌기에 정보의 전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 수도권 회원 전체에게 전달되기 까지 시간 소모가 컸다. 그래서 긴급한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연대 협조를 구하는 상황에는 유용하지 않았다.

장상연합회의 생명평화분과 전담자는 여성수도회를 대표해서 연대가 필요한 현장에 발 빠르게 결합하고 가톨릭교회 내 단체와 시민단체들과도 긴밀하게 연결됨으로써 서로 간의 정보 공유와 협조가 원활해졌다. 특히 생명평화분과의 전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도권 간 네트워크 강화와 수도권 내 조직화는 많은 수의 여성 수도자들이 JPIC 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전담자를 통해 각 현장 상황과 정보가 공문 형식과 함께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서 각 수도권과 각 수도권 회원들에게 더 빠르고 원활하게 공유되었고 긴급하게 연대 협조를 구하는 사안에서는 더 유용하였다.

각 수도권 내 담당자 배치와 JPIC 위원회 구성을 통한 수도권 조직화는 JPIC 활동에 대한 원활한 정보 공유와 수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다. 수도권 내 조직화 이전에는 JPIC 활동에 수도권 내에서 담당자 또는 관심 있는 개인의 참석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정보의 전달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정보에 접근한 사람만이 참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화 이후에는 생명평화분과 네트워크와 수도권 조직을 통

해 실시간으로 상황과 연대 요청이 전해졌기에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해졌다. 장상연합회 내의 공식 기구인 생명평화분과를 중심으로 JPIC 활동이 결정되면 이 사안들은 알림이나 공식 문서를 통해 수도회와 담당자에게 전달되고 연대 요청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각 수도회는 이 사안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수도회 회원을 동원하여 연대하였다. 특히 연대 현장에서 미사와 기도회가 개최되는 경우 많은데 이런 경우 네트워크나 공문을 통해 전례 담당 수도회를 선정하였고 담당 수도회는 전례 담당자와 함께 전례에 수도회 수녀들을 대거 참석시키게 되었으며 이것은 수도회 전체 차원의 협조로 가능했다. 이는 생명평화분과 전담자 배치 이후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의 분향소에서 있었던 매일 미사에서 시작되었다.

JPIC 활동 초기에는 수도회 내에서도 이 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더욱이 기존의 사도직 활동과는 별개로 현장 활동이 이루어졌고 활동이 생소했으며 어떻게 연대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장상연합회와 수도회는 JPIC 활동과 관련된 교육¹²⁵⁾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활동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수도회와 수도자들은 공식·비공식적 교류를 통해 JPIC 활동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더 활발한 참여로 이어졌다.

JPIC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수도자들은 처음에는 수도회 공문과 조직을 통해 정보를 전달받고 연대에 동참하였다면,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장 활동에 익숙해지면서 개별적으로 SNS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관해 L수녀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전에는 사무국(수녀회 안 JPIC 관련 사무국)에서 전달해 주는 정보를 통해 연대 소식들을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SNS의 발달로 회원 개개

125) 장상연합회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주교회의 정평,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정보를 제공한다.

인이 탈핵 도보순례나 강정 평화대행진 등 세상 연대와 관련한 기획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장상연합회 제49차 정기총회 결의문 실행 보고서).

4) 예산지원

생명평화분과는 2013년 장상연합회 제46차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기존 사회사목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신설된 분과이며 정의·평화·창조질서보전(JPIC) 연대 조직이다. 이 분과에서는 수도자들의 원활한 JPIC 연대와 제반 활동을 위해 제정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연회비를 받기로 결정하였다¹²⁶⁾. 후속 조치로 생명평화분과에 소속된 수도회는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한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이 회비는 생명평화분과위원수녀들의 전문성을 기르고 JPIC 운영과 연대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장상연합회 사무국 차원에서 생명평화분과가 연대하고 있는 연대 단체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필요 사안에 따라서는 내부 결정을 통해 예산을 지원한다. 2017년 장상연합회 제50차 정기총회 결과 보고서에는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 연대분담금을 납입하였고, ‘신효순·심미선 추모공원 조성 건립위원’에 가입하여 추모공원 부지구입비 지원하였으며,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에 참가 지원 여성 수도자들에게 항공료를 지급하였다. 이 중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에 항공료를 지원은 여성 수도자들의 연대를 촉진시켰다.

VI. 여성 수도자들의 JPIC 활동 : 제주 강정 해군기지

126) 장상연합회 공문, 생명평화 제 2018-01

건설 반대 활동

1. 제주의 역사·환경적 특색과 ‘제주평화의 섬’ 지정

제주는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의해 당시 도민의 10% 정도가 학살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4.3 사건’을 겪은 곳이어서 대부분의 제주도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고 한편 군인과 경찰 등의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 제주는 이러한 아픔과 함께 천혜의 자연 유산을 간직한 곳으로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달성¹²⁷⁾했고,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었다.

이러한 역사적·환경적 특색을 지닌 제주도는 1990년대 한소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제주도가 지정학적으로 도움이 될 것을 확인하였다. ‘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논의는 1991년 5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태평양의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문정인, 고성준, 양영철 교수의 주제 발표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제주에서는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구상들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각계각층의 토론 및 도민들의 의견이 공론화되었다. 평화의 섬 구상에 대한 논의가 발전되어 중앙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가져오게 된 계기는 1999년 개정된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세계 평화의 섬 지정(제9장)’ 관련조항이 신설¹²⁸⁾되면서 이다.

127) 강정마을 주민, 2011,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점과 반대투쟁의 역사적 의미』

128) 세계평화의 섬 지정 관련 조항은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52조 1항)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업 - 국제평화 및 협력기구 및 회의의 유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제52조 2항) 그리고

제주도민들은 1987년 민주화 이후 4.3 사건이라는 비극적 역사를 해결하기 위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했고 이러한 과정 중에서 인권과 평화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제기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정부는 4·3특별법 제정과 진상보고서를 채택하였고, 2003년 10월 31일 ‘제주 4.3 사건’이 국가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임을 인정하면서 대통령이 공식 사과를 하였다. 또한 2005년 1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에 서명하였고 제주가 평화의 섬임을 선포하였으며 “제주 ‘평화의 섬’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에 평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제주도민들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잘 돌보고 과거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여 제주가 진정한 평화의 섬이 되도록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2. 강정마을과 자연환경

제주의 강정(江汀)은 400년이 된 마을로 제주의 전통적인 마을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이 곳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감귤농사나 꽃을 재배하는 전형적인 반농반어의 조용한 마을이었다. 물 강(江), 물 정(汀)의 한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강정은 물이 풍부하고 논농사가 가능해서 예로부터 제일 강정 또는 일강정이라 불리던 곳으로 제주에서 최고의 마을이었다.

해군기지가 건설된 부지는 ‘강정천이 흐르는 구림비 중턱해변’이다. 이곳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유네스코가 ‘생물권보전지역129’으로 선정했고 이

“국가는 제2항의 사업시행을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53조 3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http://www.jeju.go.kr/jeju/peace/summary/process.htm>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에 따라 환경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¹³⁰⁾’으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에 해제된 ‘절대보전지역¹³¹⁾’이기도 하다. 구림비 바위는 마을의 앞 바다에 위치한 길이 1.2km, 너비 250m의 넓은 너럭바위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는 오랫동안 동네 마당, 사랑방, 놀이터, 쉼터 등으로 쓰여 졌고 중덕해변은 바다생물을 채취하는 삶터였다. 주민에게 ‘기’를 준다는 구림비와 그 주변은 생존의 터전이자,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3.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 저항

1) 강정 해군기지 유치와 건설 과정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1995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고 2000년 이후 국방부에 의해 해군기지 건설지로 화순, 위미, 강정 마을이 차례로 거론되면서 지역과 제주 전체는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다.

제주 강정 마을은 마을 임시총회에 일부 주민만이 참석한 가운데 겨우 87명의 찬성¹³²⁾만으로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되었고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세 마을이 갈등에 휩싸여 있는 중에도 제주도정은 건설지역 선정을 위한 토론회도 없이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3개의 후보지 중 찬성

129) 환경부 비정 멸종위기인 금빛나팔돌산호와 나팔고둥, 멸종위기보호2급 금빛나팔돌산호 등이 서식한다.

130) 천연 기념물 제442호 제주 연산호군락지이다.

131) 제주도의 독특한 제도, 자연 그 자체의 큰 변화와 변경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어떤 이 유로도 자연을 개발하거나 파괴할 수 없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 (제주도 조례)

132) 유권자 1,200명, 마을 주민 87명 참가하여 동의

율이 가장 높은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에 강정마을은 ‘강정해군기지유치반대위원회’(이하 강정반대위)를 결성하였고 임시 총회를 열어 해군기지를 유치했던 마을 회장을 경질하고 신임 마을 회장을 선출하였다. 또 마을 총회에서 재투표¹³³⁾를 실시하여 주민투표 무효를 선언을 하였으며 해군기지 유치 반대 결정을 확정지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협동과 유대를 중시하고 400년의 전통을 자랑하던 강정 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반대와 찬성으로 갈라져 형제와 친척, 부모가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은 크게 해군기지 부지선정 과정, 구럼비 밭파와 공사 강행, 마을 안 군관사 건설 강행과 농성장 행정대집행, 해군기지 준공식을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군기지 유치 결정에서 해군기지 건설 강행 전까지는 유치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무시와 환경영향평가와 강정 해안 절대보전지역 변경과 관련한 도의회의 동의 절차상 오류에 대한 문제제기와 행정소송 그리고 제주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위한 투표 실시 등의 반대활동을 펼쳤다.

구럼비 바위 주변 해안선을 따라 철조망이 기습 설치되고 해상공사가 시작되면서 대규모 공권력이 투입되었으며 구럼비 바위 밭파 소식은 SNS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하게 되었고 각지에서 많은 연대자들이 강정마을로 모여들었다. 구럼비 밭파로 시작된 공사 강행으로 활동가들과 연대자들은 공사장 입구에서 연좌를 통해 공사차량을 막는 등의 공사 저지 활동을 주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폭력과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의 연행, 구속, 수감이 반복되었다.

해군기지 건설과 함께 국방부는 군관사를 강정마을 안쪽에 건설하고자 하

133) 총유권자 1,200명 중 725명 투표 참가, 반대680, 찬성36, 무효9

였으나 98%의 강정마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건설을 반대하였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해군은 주민 동의가 없다면 군관사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제주시는 대체 부지 또는 민영아파트 지원을 제시했으나 해군은 약속과 제안을 무시하고 군관사 건립을 강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세워놓은 농성장에 국방부는 행정대집행¹³⁴⁾을 감행했다. 특히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이곳은 육지로부터 온 대규모 경찰병력이 배치되었으며 주민들과 활동가, 연대자들을 감시하였다. 육지 경찰의 폭력적으로 진압은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과거 4.3사건을 연상하게 하였다.

2016년 2월 26일은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이 있었다. 주민들과 활동가들, 연대자들의 길고 긴 거센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는 완공되었다. 이날 강정 마을회는 2007년의 ‘강정생명평화마을’ 선포를 재확인하고 군사주의와 개발주의에 맞서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계속 지켜나갈 것을 선언하였다.

강정 해군기지 반대 투쟁 10년 동안, “강정 주민들은 마음의 고향인 구럼비 바위를 잃었고, 해군기지 찬성과 반대로 공동체가 찢기는 고통을 겪었다¹³⁵⁾” 또한 반대활동을 한 강정 주민들과 평화활동가 그리고 연대자들 약 700여 명이 연행되었고, 자발적 노역을 택한 사람을 포함해 60명이 감옥에 수감되었으며, 벌금만도 3억 원이 넘었다. 이에 덧붙여 해군과 정부는 해군기지 완공되자 공사지연에 대해 그동안 반대활동을 벌여온 마을회장을 포함한 116명과 5개 단체에 34억 5천만원의 구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반대 주민들은 ‘국가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강정 주민의 숨통을 조이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주민들의 구상권 철회 요구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 이행으로 구상권은 철회되었으나 최근 국제 관함식 유치로 인해 마을의 갈등은 다시 재현되었다.

134) 2015년 1월 31일

135) 2017년 강정 해군기지 반대 투쟁 10년 구럼비 기억행동 주간으로 선포식에서

2) 강정해군기지 관련 주요 사항

<표 9> 강정 해군기지 관련 주요 사항

1993. 12월	합참, 제주 해군기지 신규소요 제기
1995. 12월	1997~2001 국방증기계획에 제주 해군기지계획 반영
2001. 7월	해군본부가 해수부 상대로 화순항에 해군전용부두 수용여부 타진
2003. 6월	공군의 제주도 항공전략기지 건설 추진 계획 드러남
2005. 1월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에 서명하고 선포
2005. 3월	국방부, 해군기지 재추진 구상 발표
2007. 4. 26	강정마을회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 의결 (유권자 1,200명, 마을 주민 87명 참가 동의)
2007. 4. 30	해군기지 유치 후보지 강정마을 포함 결정 (강정, 위미, 화순 3개 지역 여론조사에 의해 후보지 결정토록 함)
2007. 5. 14	해군기지 유치 결정 및 최우선 후보지 강정마을 발표
2007. 5. 18	강정해군기지유치반대위원회 출범
2007. 7. 3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 발족
2007. 8. 10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유치주도 마을 회장 해임, 신임회장 선출
2007. 8. 20	강정마을 총회 주민투표, 유치무효 선언 (725명 참여, 반대680, 찬성36, 무효9)
2008. 9. 11	정부,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개발 사업 확정 발표
2009. 1. 21	국방부 장관, 제주해군기지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2009. 4. 27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도, 해군기지건설 기본협약서(MOU) 체결 제주도의회, 범대위, 강정마을회 등 정부-제주도 MOU체결 원천무효 입장 발표
2009. 5.6 ~6.29	강정마을회 및 제주 시민사회, 주민소환 추진 77,367서명
2009. 8. 17	육지 경찰병력 강정 현장에 전진배치

2009. 8. 26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투표율 미달로 무산(11%)
2009.12. 17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강정 해안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날치기 의결
2010. 1. 7	강정마을 천막투쟁 돌입
2010.11.27	해군기지 공사 시작 해군기지건설 반대 기자회견 주민 34명 강제연행
2011. 1.20	해군 및 삼성·대림, 사전 고지 없이 굴착기 동원 구럼비 바위 굴착공사 시작
2010. 2.16	해군기지 공사 강행
2010. 5. 18	제주지법 항소부, 강정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소송 원고부적격 기각 판정
2010 9. 2	구럼비 폐쇄, 펜스설치
2012. 2. 22	이명박 대통령 취임4주년 특별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 강행 의지 표명
2012. 2. 24	구럼비바위 굴착기동원 해안선 따라 철조망 기습 설치
2012. 3. 1	준설공사 바지선 강정 앞바다 전격 투입 해상공사 시작
2012. 3. 7	대규모 공권력 투입 구럼비 바위 인근 본격 발파 시작 구럼비바위 발파 소식 SNS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
2012. 7. 5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 강정마을 패소
	절대보전변경 해제 무효소송 강정마을 패소
2013. 1. 1	국회, 정부의 해군기지 예산안 통과
2014. 11. 7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철회를 위한 천막설치
2015. 1. 31	국방부 군관사 앞 농성장 행정대집행
2016. 2. 26	제주해군기지 준공식/강정마을회, 생명평화문화마을 선포식
2016. 3. 28	해군, 제주해군기지구상권 행사 34억 5천만원 손해배상청구
2016. 3. 30	강정마을회,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 비판 기자회견
2017.12.12	정부,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청구소송 취하

출처: 강정마을회, 2017, 「제주해군기지만대 및 생명평화운동 : 중간자료집 I 2007~2017」 재구성

4. 강정해군기지 건설 반대 가톨릭의 연대활동

1) 가톨릭의 연대활동

가톨릭의 강정 해군기지 건설반대 활동은 ‘평화의 섬 실현 천주교 연대(이하 평화의 섬 천주교 연대)’가 결성되기 전까지는 강우일 주교와 제주교구가 주축이 되었고 이후에는 천주교 연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제주교구의 반대활동은 해군기지 건설 후보지 결정 과정에서 제주도 전체가 갈등으로 분열되고 또 한편으로 제주도가 군사기지화 됨을 우려한 제주교구 정평위의 성명서로 시작되었다. 시민단체와 범대위를 구성한 제주교구의 해군기지 반대활동은 교구장인 강우일 주교의 역할이 컸다. 그는 필요사안에 따라 성명서, 담화문, 기고 등을 통하여 건설반대를 교회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였고 주교회의 정의평화 위원회도 제주교구와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강우일 주교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 가톨릭교회는 ‘제주평화의 섬 실현 천주교 연대¹³⁶⁾’를 결성하였는데 이는 전국의 모든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평신도 단체가 연대한 최초의 시도였다. 이 결성의 시기는 강정의 구림비 바위 주변에 펜스가 설치되어 폐쇄되고 건설 공사가 강행되기 직전이었다. 문정현 신부를 중심으로 강정마을에서는 공사부지 근처 천막에서 매일 미사가 이어졌는데 이후 사제들¹³⁷⁾이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였다. 이러한 가톨릭의 연대활동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 연대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136) 전국 15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군종교구 제외한 모든 교구),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 상연합회,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이 참여했다.

137) 제주교구 사제, 강정 상주 사제들,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사제

‘제주평화의 섬 실현 천주교 연대’의 활동은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함을 알렸고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연대활동으로 전환되었다. 평화의 섬 천주교연대는 강정에서 벌어지는 사안에 따라 강정에서의 반대활동에 결합하기도 하였고, 육지의 각 지역에서 생명평화 미사를 개최하였으며 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이 강정 주민만의 일이 아님을 알렸다. 평화의 섬 천주교연대의 결성과 활동에 대해서는 E수녀가 다음과 말하였다.

구럼비가 발파되고 천주교 연대가 생겼어요. ... 연대는 제주교구를 비롯해서 각 교구 정평 그리고 남장 사도생활단하고 저희 여장 사무국이 참여를 한거죠. 그리고 서로 분담금을 내서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그러면서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에서 주로 결합시키고 하는데 많은 일을 했어요. 인권위원회의 활동도 아니면서 행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많은 분들을 여기에 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러면서 한거죠. ... 끊임 없이 어떤 이슈나 특별한 뭔가가 있을 때에는 제주에 결집할 수 있도록 같이 하고 그런걸 했고 그리고 천주교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연대 회의를 지속적으로 같이 했죠.(인터뷰 날짜 2018년 4월 20일)

또한 평화의 섬 천주교연대는 강정 해군기지 반대활동의 중심이 될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건립에도 힘을 모았고 이 센터는 2015년 완공되었다. 이 센터 완공 후에는 이 센터를 중심으로 반대활동이 이루어졌기에 평화의 섬 천주교 연대의 활약이 미미해졌다. 그리고 해군기지 완공 이후에는 프란치스코 평화센터가 다양한 평화포럼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세상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장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표 10> 강정해군기지 건설반대 가톨릭교회 주요 활동사항

2006.12.11	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해군기지 반대 입장 기자회견 ¹³⁸⁾
2007. 5.17	제주교구 성모의 밤 (강우일 주교) “제주는 군사기지가 아니라 평화의 기지가 되어야 한다”
2007. 5.18	평화의 섬 제주를 염원하는 제주교구 사제단 단식기도회 (제주 교구청, ~24일)
2007. 5. 14	해군기지 유치 결정 및 최우선 후보지 강정마을 발표
2007. 5.21	강우일 주교,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 ¹³⁹⁾
2007. 6.7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¹⁴⁰⁾ ’를 결성 기자회견
2007. 7.3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 참 평화를!’ 특별 성명서 발표 ¹⁴¹⁾ /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2007.11.8	제주교구 해군기지 건설예산 폐기 촉구 기자회견 개최, 100만인 서명운동 국회전달
2008. 9.11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개발 사업 확정 발표
2008.10.28	강우일 천주교주교회의의장, 한승수 국무총리 만남-해군기지 관련 입장 전달
2010. 4.26	‘생명·평화 기원미사’/ 4월 28일로 계획된 제주해군기지 착공식을 겸한 안전기원제에 대한 강력 반대의 표시로 봉헌
2011. 9. 3	문정현 신부, 거리미사 시작 ‘강동군 마을회장이 구속된 공사장 정문이 이 시대의 골고타’
2011. 9. 8	제주교구 강정사거리 공터에서 생명평화미사 봉헌 강우일 주교 강론, 강정평화선언 발표 ¹⁴²⁾
2011.10.10	제주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 연대 출범 ¹⁴³⁾ 및 미사
2011.10.31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 연대 기자회견/국회 본관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사제·수도자 선언’ /사제와 수도자 3711명 서명
2011.11.14	전국 집중 생명평화미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2011.12. 6	<구럼비 바위 발파 신청과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을 규탄한다 ¹⁴⁴⁾ >성명서 발표/‘제주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

138) ‘해군기지 건설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 자연을 보전하고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주장

2012. 1.10	제주 강정마을 수녀 18명 연행
2012. 1.16	-수도자 연행에 대한 기자회견 ¹⁴⁵⁾ / 제주도 의회 도민의 방
2012. 1.31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및 국가 공권력 회개를 위한 시국미사
2012. 3. 7 대규모 공권력 투입 구럼비 바위 인근 본격 발파 시작 SNS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	
2012.3.12	강정 집중 미사 참여/ 구럼비 발파 항의 및 김정욱 신부, 이정훈 목사 구속 항의
2012. 3. 19 구럼비바위 본 발파 개시	
2012. 4.2	강정마을해군기지건설 반대 미사
2012.4.21	강정마을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시도 철회와 제주 해군기지 전면 백지화를 위한 서울·강정 생명평화 미사
2012. 8. 8	천주교 미사 성체 훼손 사건 (경찰에 의해)
2012. 9.30 ~10. 1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 연대 2주년 미사 및 평화포럼
2014년	강정마을 지킴이로 수녀 2명 파견
2014. 8.18	프란치스코 교황 집전 명동성당 미사 강정마을 주민 3인 참석

139) ‘평화의 섬’ 제주가 군사기지화 하는 계획의 수정과 해군기지 유치 결정 과정에 도민 전체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식별의 과정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

140) 교구 사제들, 대학교수,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

141) http://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160687 가톨릭신문 2007년 7월 8일 기사, <한국교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검색 2018년 8월 11일
제주교구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이 한국교회 차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기산 주교는 7월 3일 특별 성명을 발표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온 제주교구의 입장을 지지하고 한국교회 차원의 연대의 뜻을 밝혔다.

142) “강정아, 너는 한국에서도 가장 보잘 것 없는 시골 마을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에 평화가 시작되리라”라는 강정평화선언을 발표하였다.

143)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며 “유네스코 공식 지정 생물권 보존지역이자 아름다운 자연 유산인 구럼비 해변을 파괴하는 공사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요청

144) ‘평화의 섬’ 제주가 군사기지화 하는 계획의 수정과 해군기지 유치 결정 과정에 도민 전체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식별의 과정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

2015년 1월 31일 국방부 군관사 앞 농성장 행정대집행	
2015. 9. 5	강정사목센터 축성식 :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2016. 2.26	제주해군기지 준공식
	강정마을회, 생명평화문화마을 선포식

출처: 강정마을회, 2017, 「제주해군기지반대 및 생명평화운동 : 중간자료집 I 2007 ~2017」

재구성

2) 가톨릭교회의 가르침¹⁴⁶⁾ : 사회회칙 중 평화, 개발, 자연환경 분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국가 간의 긴장은 군비 증강이나 전쟁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고 진정한 평화는 힘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바탕으로 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¹⁴⁷⁾”고 말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목헌장 80항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명의 무차별 살상을 일으키는 전쟁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바오로 6세 교황은 회칙 ‘민족들의 발전’에서 세계 곳곳의 많은 이들이 가난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군비 경쟁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현실을 개탄하였다.

회칙 ‘사회적 관심’은 개발에서 창조물을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이유에 대해 말한다. 첫째, 생명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동물·식물·자연 요소들) 다양한 종류의 사물을 인간이 자기 원대로만, 자기의 경제적인 필요에만 의

145) 장상연합회 회장, 부회장 제주도 파견 수도자 30명, 제주도 정평위 12명, 강정마을 대표, 환경 운동가 등이 참여하였다.

146)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2011, “제1회 사회교리 주간 교육 자료: 2011년 한국의 현실과 사회 교리”, 28~29쪽 재구성

147) 2002년 세계평화의 날 담화문

거해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을 자각해야 한다. 둘째, 자연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자각에 바탕을 둔 것인데, 어떤 자원은 글자 그대로 재생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절대 고갈되지 않을 것처럼, 절대 지배권을 가진 것처럼 사용하면 현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 이용 가능성을 해치게 된다. 셋째,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지배는 절대권이 아니기에 사물을 자기 좋을 대로 처분해서는 안된다.

3) 강우일 주교와 ‘제주평화의 섬 실현 천주교 연대’의 입장

강우일 주교는 2007년 ‘평화의 섬 제주를 염원하며’의 교구장 담화문¹⁴⁸⁾을 통해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 특히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은 용납될 수 없음을 선언하였고 무력을 통한 정당방위는 엄격한 조건들의 충족이 필요하며 군비축소에 대한 요구와 함께 무력 증강이 결코 평화의 보증이 될 수 없음을 역설하였다. 특히 “제주는 4.3 사건으로 무고한 주민들이 학살된 곳으로 그들의 희생을 거름으로 참된 평화의 섬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강주교의 담화문은 제주 대외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강우일 주교는 교구 성모의 밤 미사 강론¹⁴⁹⁾에서 해군기지 유치문제에 대해서 “제주에 군사기지가 아니라 평화의 기지가 되어야 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천명했다. 제주도지사의 해군기지 건설 동의 발표 후 강우일 주교는 2차 평화 기도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¹⁵⁰⁾을 통해 평화

148) http://www.diocesejeju.or.kr/board_diocese/26559 제주교구홈페이지 2007년 5월 7일 게시물, <[교구장 담화문] ‘평화의 섬 제주를 염원하며’ (해군기지 계획과 관련하여)>, 검색 2018년 12월 19

149)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160093 가톨릭신문 2007년 5월 27일 기사 <제주교구 성모의 밤> 검색 2018년 12월 19일

의 섬 제주의 군사기지화 계획의 수정과 해군기지 유치 결정 과정에서 도민 전체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식별의 과정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하였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 참 평화를!’의 특별 성명서 발표¹⁵¹⁾를 통해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재고해달라는 제주교구의 입장을 지지하였고 오직 무력과 군비경쟁으로 평화가 확보될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진정한 평화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제주도에서의 대규모 군사기지 건설은 모순이요, 기지 건설은 자연 환경과 생태계 파괴로 이어짐을 지적했다. 이 성명서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반대 활동이 전체 한국 가톨릭교회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강우일 주교는 ‘제주의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양심¹⁵²⁾’이라는 교회 내 언론 매체에 보낸 기고문에서,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강정 주민을 비롯해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대변하였다. 정부가 앞장서 자랑하고 홍보하는 제주의 자연유산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이를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청정 해역의 군사기지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자연이 보존된 강정 앞바다에 해저를 준설하고 콘크리트로 재방을 쌓아 군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이율배반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강우일 주교는 강정을 해군기지 후보지로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가 너무나 비민주적이

150)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160072 가톨릭신문 2007년 5월 27일 기사 <“제주 해군기지 유치 철회하라”> 검색 2018년 12월 19일

151)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160695 가톨릭신문 2007년 7월 8일 기사 <[사설] 제주 참 평화 위한 연대를 촉구한다> 검색 2018년 12월 19일

152)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42> 가톨릭지금여기 2011년 10월 14일 기사 <제주의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양심[강우일 제주교구장 기고문]> 검색 2018년 12월 19일

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이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강우일 주교는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더 근원적인 사유를 제주의 역사와 제주도민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4.3의 상처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제주평화의 섬 실현 천주교 연대’는 출범 총회를 하고 사제·수도자 선언문¹⁵³⁾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¹⁵⁴⁾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해군기지 건설은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비민주적인 해군기지 건설과정에 대해 강정주민들에게 사과하고 공사로 파괴된 제주의 생명과 자연을 원상회복시키며 제2의 4·3 사건’을 우려하는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공권력 남용에 사죄하라고 촉구하였다.

5. 여성 수도자들의 JPIC 활동

1) 전담자 배치 : 강정 마을 내 연대활동의 조직화

장상연합회는 ‘제주평화의 섬 실현 천주교 연대’에 가입하였고 가톨릭 전체 차원의 연대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생명평화분과 전담자는 평화의 섬 천주교 연대의 활동에 장상연합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였고 직접 강정 마을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미사,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153) 전국의 사제 1043명, 수도자 2668명(수녀 2394명, 수사 274명) 등 모두 3711명의 서명이 담긴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사제·수도자 선언’을 국문과 영문으로 발표하였다.

154)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230895 가톨릭신문 2011년 10월 16일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 연대’ 출범 총회> 2018년 12월 19일 검색

등에 참여하였고 수도권 지역에서 강정마을을 지원하는 활동에 연대하였다.

또한 전담자는 강정마을의 상황과 연대 요청에 관련된 정보를 취합해 생명평화분과 위원 그리고 각 수도회에 전달하였으며 긴급한 연대가 요청되었을 때 여성 수도자들의 참석을 촉구하고 연대자를 강정과 필요한 지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였다. 장상연합회를 통한 연대활동의 시작에 대해 C수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장상연합회에서 평화의 섬 천주교 연대 출범식에 참여하자 했기 때문에 사실 가게 되었어요. 개인이 먼저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조직이라는게 이런 것들을 식별하고 아마 처음에는 그런 것 시작하면서 미사에 초청했을 것 같아요. 오라고 초청해서 우리가 분별해서 갔겠죠. ... 내가 먼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가서 봤는데 이것은 진짜 내가 그래 여성 수도자가 이런데 있어야겠다. 정말 평화를 위해서는 여기 전쟁을 없애도록 여기 함께 해야겠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인터뷰날짜 2018년 4월 13일)

특히 강정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에서 전담자는 강정의 상황과 필요한 연대 활동에 대해 알리고 연대를 원하는 여성 수도자들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강정마을 내 천주교팀과 의견조율을 통해 마을 내에서의 여성 수도자들의 역할과 실천 사항을 기획하였다. 강정에서의 연대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수도자들에게 항공료를 지원하였고 이들이 강정에서 3박 4일 이상 머무르면서 연대활동에 참가토록 안내하였다. 연대자의 모집과 강정 활동에 관련된 사항을 E수녀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전까지 알음알음 가던 것을 2013년 때부터 조직을 한거죠. ... 수녀님들

신청을 받고 항공료를 지원을 받아서 강정에 가도록 했고 그곳에서 3박 4일 이상 머무르면서 지내도록 했죠. 교통비를 지급하면서 모집도 해서 루트를 제공한 거죠.(인터뷰 날짜 2018년 4월 20일)

강정마을에서 여성 수도자들이 하는 연대 활동은 다음과 같다. 신청 수녀들은 강정공소에서 머무르면서 오전 7시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완공 이후 해군기지 정문)에서 평화의 백배를 하고 11시에는 공사장 정문에서 있는 미사에 참석한다. 그리고 미사 후에는 춤과 노래로써 평화를 외치는 인간띠잇기를 하고 연대자들 및 활동가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강정 마을에서 벌어지는 활동에 참석하고 강정 공소 회장과 함께 마을 안의 농토에서 농사일을 한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펼쳐지는 일과로서 연대자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강정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에 참가하게 된다. 이러한 강정에서의 연대 활동에 대해 C수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침에 7시에 백배하고 와서 아침식사하고 그리고 아침기도하고 11시 미사가 있어서 또 그기에 강정의 미사에 참여하고 미사 주도하고 사회 보고 미사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강정이 아직 저기 관사를 짓고 있는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공사길 막느라고 미사 중에 거기 앉아가지고 미사를 드렸어요. 미사 중간에 우리가 강정 공사하는 곳을 방해하기 위해서 거기 앉아서 길을 막고 미사를 했었어요. 그때 느낌은 되게 완전히 최전방에 와있는 느낌 같은거 있잖아요. 경찰들이 서있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못해보는데 완전히 여기 최전방에서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맞부딪혀있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또 우리를 길에서 들어서 옮겨놓으면 다시 또 들고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계속 그걸 반복했어요. 공사를 지연하는 거로 했던거죠. 거기에 협력한 거죠. ... 그렇게 끝나고 나면 점심은 공소 삼거리 식당에서 먹고 그 다음에 그

기에서 일들이 있으면 뭐, 공소에서 주어진 일들 그런걸 하고 4.3 유적지 이런데도 방문하게 되고 역사도 알게 되고 프로그램을 짜서 하게 됐어요. (인터뷰 날짜 2018년 4월 13일)

강정에서 연대활동을 하는 여성 수도자들은 강정마을에 머무르면서 이루어지기에 강정의 상황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마을 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만날 수 있어 다른 곳에서의 활동과는 구별된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활동이 지속적인 연대로 이어진다고 본다. 인터뷰에서 B 수녀는 강정 마을에서의 연대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는 우선 그곳에 와있는 천주교 신자들이 아닌 활동가들의 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였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튼 그곳은 제가 봤을 때에는 연대활동이 그냥 천주교 수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 (다른 현장은 미사를 참석하면서 대체로 천주교 연대자들만을 만났는데) 강정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저는 연대라는 것은 종교를 뛰어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교를 뛰어 넘어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인터뷰 날짜 2018년 4월 20일)

2) 외부와의 연대 및 네트워크 강화

장상연합회 차원에서의 여성 수도자들의 강정해군기지 반대 활동은 한국 가톨릭교회가 해군기지 건설 반대 입장을 표방한 후 ‘제주 평화의 섬 실현 천주교 연대’를 결성하고 여기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제주 평화의 섬 천주교 연대 결성 전에는 제주교구에 파견되어 있던 여성 수도자

들이 교구 차원에서의 활동에 연대하였다.

전담자 배치 이전 평화의 섬 천주교 연대가 결성되었고 이 때의 활동은 주로 장상연합회 상임위원회와 생명평화분과 위원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졌다. 전담자가 배치된 이후는 제주 평화의 섬 천주교 연대와 함께 제주교구와 강정마을에 긴밀히 협력하였고, 연대회의에 참석하였고 강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장상연합회와 각 수도회에 전달하였다. 그리고 수도회 간 네트워크와 수도회 내 조직을 통해 강정의 상황과 소식이 발 빠르게 전달되었으며 연대 요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전담자를 중심으로 수도회 간 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연대활동에 참여하는 수도회의 숫자가 확대되었고 많은 수의 여성 수도자들이 연대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 수도자들은 자발적으로 연대활동을 찾기보다 가톨릭교회와 장상연합회 및 수도회 차원에서의 연대 결정에 따르고 주로 미사와 기도회를 중심으로 하는 연대활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으나 가톨릭교회 외부의 시민단체와 연대에는 소극적인 편이다. 이에 대해 C수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명평화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도 같이 회의에 나와서 모이고 사실은 장상연합회가 중요하죠. 결정을 해서 미사를 하자 뭐하자 그런 것도 다 정하는 거니까. 남장하고도 함께 하고 그렇게 하면서. ... 우리 수녀님들은 먼저 나서지는 않아요. 이게 한국 수도자들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교회의 조직이 우리를 초대할 때 가자 해서 하고 ... 미사 요청하면 미사 하고 가고 거의 미사를 중심으로 하지 집회 같은 거는 많이 안와요. 왜냐면 집회는 일반사회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구나 시민단체가 하는 거구나 우리는 미사가 있어야 가는 거고 우리는 소극적인 것이 많아요.(인터뷰날짜 2018년 4월 13일)

3) 정보공유

강정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이 처음으로 수도자들에게 알려진 것은 제주교구장인 강우일 주교의 강연과 인터뷰 기사 등을 통해 그 상황이 알려지면서 부터이다. 그리고 ‘제주평화의 섬 실현 천주교연대’가 구성되고 이에 장상연합회도 가입하였고 공문을 통해 연대 출범식을 알렸고 사회사목분과 위원들과 수도회에 미사 참례를 독려¹⁵⁵⁾하면서 공식적으로 강정의 소식이 여성 수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B 수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장상연합회에서 강정, 제주평화의 섬 실현 천주교연대의 출범식에 함께 할 수 있는 수도회는 함께 해달라는 공문이 그때 왔죠. 그래서 가게 됐던 것이고 아마 수도회 차원에서도 여자 수도자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회정의 활동에 연대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마도 그때부터일거예요.(인터뷰 날짜 2018년 4월 20일)

그때 우리가 참석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때 제주평화의 섬 천주교 연대가 결성이 됐어요. ... 제주교구 신부님이 사회를 보면서 전체 집회, 모임을 주도했고 천주교 연대를 결성을 했고 그 날 밤에 강정포구로 가서 미사를 했어요. 강우일 주교님이 미사 주례하셨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강정 마을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됐고 가능하면 자주 방문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인터뷰 날짜 2018년 4월 20일)

2012년 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위원회 수녀 18명이 강정마을을 방문해

155)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공문, 장상연 제 2012-004

기도하던 중 사제, 활동가들과 함께 연행되어 다음날 새벽에 수녀들은 석방되고 여자 활동가 2명은 유치장에 수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수녀들의 연행 사건은 한국 사회 안에서 거의 처음 있는 사건이었고 여성 수도자의 문제였기에 장상연합회 차원에서 대응이 이루어졌으며 공문을 통해 각 수도회에 전달¹⁵⁶⁾되었다. 장상연합회는 기자회견¹⁵⁷⁾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 반대의 입장을 재천명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후 장상연합회 상임위원회는 국회를 방문하여 성명서를 각 정당 대표들과 경찰청장에게 전달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각 수도회에 전달¹⁵⁸⁾되었다.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전국의 사제와 수도자들이 함께 하는 ‘시국을 위한 생명평화 미사’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각 수도회에 공문¹⁵⁹⁾을 통해 미사참석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이 강정 해군기지 반대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와 미사와 기도회, 기자회견 등의 참석 요청은 장상연합회 차원의 공문을 통해 전달되고 이와 함께 전달자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파급되었다. 특히 스마트폰과 SNS의 보급과 활용은 강정의 상황이 쉽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연대활동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4) 예산지원 : 항공료 지원

초기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은 주로 공사장 정문에 앉아서 공사차량의

156)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공문, 장상연 제 2012-003

157) 한국 천주교회의 사제·수도자·자매형제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함을 다시한번 알리고 해군기지 공사중단을 요구했다. 그리고 수녀들의 경찰 연행은 군부독재시절에도 없던 일로 더욱이 기도 중인 수도자들에 대한 물리적이고 강압적인 연행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임을 지적하였고 특히 함께 있던 청소년들까지 연행해 유치장에 수감한 점에 대해서 경찰청장과 제주경찰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158)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공문, 장상연 제 2012-005

159)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공문, 장상연 제 2012-008 , 제 2012-010

통행을 저지하는 활동이었다.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강정활동가들 및 연대자들은 공권력과의 잦은 충돌을 겪었고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성 수도자들이 현장에 함께 할 경우, 그곳 현장에 있는 사제와 활동가들, 연대자들은 일상적으로 겪고 있던 경찰들과 용역들의 욕설과 폭력이 좀 줄어들거나 순화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¹⁶⁰).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강정의 M신부가 제안 하여 서울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장상연합회로 공문을 보내어 2014년부터 여성 수도자들이 강정을 방문해 연대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게 되었다¹⁶¹). 여성 수도자들의 연대 요청과 항공료 지원에 대한 배경에 대해 E수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M 신부는 강정의 현장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물리적으로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곳만 알지 육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당하는 고통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고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 건너서 듣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있죠. 신부님께서 쌍용자동차 건으로 서울에 올라오셨을 적에 대한문에서 미사를 하고 수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조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매주 그 수녀님들 한두 분이라도 꼭 오기만 해도 수녀님들이 일당백이다. 그러시면서 연대를 요청하시고 사제단에 얘기를 해서 교통비 지원을 건의하셨죠. (인터뷰 날짜 2018년 4월 20일)

여성 수도자들은 경제적으로 자유롭지도 넉넉하지도 않았기에 강정에 가는 것이 현실 여건 상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여성 수도자들의 연대를 활성화시키고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고자 제주 평화의 섬 천주교 연대 내 가입 단체들이 항공료를 보조하고 장상연합회는 신청 기준에 따라 지

160) E 수녀의 인터뷰 내용

161) 생명평화분과 내부자료: 수도자 강정방문 항공료 지원

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B수녀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강정에 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솔직히 말씀 드리면 수도권에서 비행기표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이유를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후 장상연의 협조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인터뷰 날짜 2018년 4월 20일)

항공료 지원은 이 결정이 있기 전인 2013년 9월부터 정의구현 사제단이 이후에는 천주교 연대에서 함께 부담¹⁶²⁾하였으며 이것은 2015년까지 이어졌다. 그 후 2016년은 서울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장상연합회가 2017년부터는 장상연합회가 부담하고 있다¹⁶³⁾.

항공료 보조에 대해서는 장상연합회가 공문¹⁶⁴⁾을 통해 각 수도회에 전달하였고 생명평화분과 전담자에게 신청을 권유하였다. 이를 통한 항공료 지원자의 숫자는 2014년 32명, 2015년 40명, 2016년 55명, 2017년 32명¹⁶⁵⁾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강정 해군기지 반대활동이 각 수도회 전체에 잘 알려졌고 항공료 보조를 통해 많은 여성 수도자의 연대가 촉진되었다.

162)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2013년, '제5차 정기회의록'

163) 생명평화분과 위의 내부자료

164)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공문, 장상연 제 2017-022, 생명평화분과 내부자료

165) 생명평화분과 위의 내부자료

VI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수도자의 예언자적 역할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친 배경 및 동기, 직접적인 사회참여의 계기 그리고 사례연구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수도자의 역할전환은 가톨릭교회와 한국 가톨릭의 역사 안에서 사회참여의 가톨릭적 가치와 가치의 변화, 초교파적인 교회의 사회운동(JPIC)의 영향, 전환의 촉진자로서의 진보적 리더와 함께 그리고 교회 내의 수도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와 수도자 내부의 위기와 역할 전환 인식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전환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회참여(JPIC 활동)가 전개되었는데, 이는 그 당시의 정치적 환경 변화와 함께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맞춰 장상연합회 내에 생명평화분과의 전담자를 배치하고 가톨릭교회 내 단체와의 연대 강화, 수도회 간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각 수도회 내 담당자 배치와 위원회 구성의 조직화 과정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중앙집권적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수도회는 교계 조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그 영향 아래에 있다. 그리고 수도자들은 수도회 조직 안에서 공동체와 규칙, 순명 서원에 묶여 있기에 개인적 판단과 행동이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사회참여 활동은 공동체의 이해와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수도자의 사회참여는 개인의 가치와 태도의 변화와 더불어 교회와 수도회 전체 차원에서의 가치와 태도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장상연합회에 가입한 한국 여성수도회는 약 100개 이상이고 여성 수도회 내에서도 수도회의 분위기에 따라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 자발성과 적극성이 다르다. 그렇기에 각각의 수도회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차원의 네트워크 형성과 각 수도회의 대략적인 조직화 과정을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사회참여 현장인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사회참여와 관련성이 있는 교회 내의 문헌을 고찰하였고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사회교리를 통해 교회와 그 구성원의 사회참여는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시대의 사명임을 밝혔다. 그리고 수도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수도회는 교회와 사회 문제가 있는 곳에서 창립되었고 역사 안에서 각 수도회는 고유하고 본질적인 사명으로서의 예언자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수도회는 교회와 세상의 경계에 있으면서 교회와 사회에서 예언자적 역할을 해야 하는 본질적 사명을 갖고 있음을 역시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존경받는 종교지도자의 행보는 여성 수도자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여성 수도자들에게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의 아픔과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돌보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한편 한국의 여성 수도자들이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쇠퇴한 유럽 교회와 달리 이 시기의 한국 가톨릭교회는 양적으로 팽창하였고 교세를 확장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한국 여성수도회는 입회자가 급증하였고 양적으로 팽창하였다. 그러나 여성수도회는 입회자들을 창립자와 수도회의 카리스마에 따라 교육시키지 못했으며 수도회 고유한 사도직을 펼치지 못했다. 이는 한국 교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여성 수도자들은 사제들을 보조

하고 평신도들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기능적 역할 수행을 하였기 때문이다.

여성 수도자들의 이러한 기능적 역할 수행은 수도회의 고유성과 본질적 사명을 희미하게 만들었고 수도회 간에도 다양성을 찾을 수 없게 하였다. 그래서 교회와 장상연합회, 수도회는 이러한 수도자들의 상황에 대해 다양한 문제제기와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수도자의 기능적 역할 수행은 수도자의 본래 역할이 아니고 그들의 본질적인 사명은 ‘예언자적 역할’임을 밝혔다. 그래서 많은 수도회들이 이를 바탕으로 각 수도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수도회 카리스마와 창립 카리스마를 연구하고 이를 현시대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숙고가 이루어졌다.

최근 한국 사회 10년은 과거 민주화 운동시기와 비슷하게 국민과 정권의 갈등이 심각하였다. 정권의 불통과 비민주적 의사결정 그리고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은 사회 혼란을 초래했으며 갈등을 유발시켰다. 이에 시민사회는 정권에 대해 분노하고 저항하였으며 이러한 저항의 행렬에 여성 수도자들도 함께 하였다. 이러한 여성 수도자들의 사회참여 활동은 앞서 말한 여성 수도자의 본질적 사명이 ‘예언자적 역할’임을 자각한데에 기초를 두고 있다.

물론 자각만으로 이러한 사회참여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아니다. 여성 수도자들이 사회참여가 활발해진 배경에는 장상연합회 내 생명평화분과 전담자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강화와 수도회 내 조직화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장상연합회의 네트워크 강화는 생명평화분과 내의 전담자가 배치되고 이 전담자를 중심으로 각 수도회 간 JPIC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이다. 네트워크 강화는 생명평화분과 차원에서 각 수도회에 담당자를 선정하고 생명평화분과에 가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과 총회 안건 상정 이후 장상연합회 차원에서의 의결 사항으로 수도회 내 담당자의 배치를 결정하면서도 실

행되었다. 또 이러한 네트워크 강화는 각 수도회 내 조직화로 연결되는데 다수의 수도회가 JPIC 담당자 배치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생명평화분과를 중심으로 한 수도회 간 네트워크 강화와 수도회 내 조직화는 서로간의 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긴급한 연대 요청에 발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생명평화분과 뿐만 아니라 각 수도회 위원회와 사회참여에 관심이 많은 개인 수도자의 연대까지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강정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은 제주교구를 중심으로 부지 선정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과 이후 제주교구와 ‘제주 평화의 섬 실현 천주교 연대’를 중심 한 해군기지 건설 저지 활동으로 나뉜다. 이전 시기는 제주교구에 사도직 파견을 받은 여성 수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이후의 시기는 장상연합회가 평화의 섬 천주교 연대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생명평화분과 전담자가 배치되면서 이 연대에 긴밀히 협조하여 활동하고 공문과 네트워크를 통해 강정의 상황을 공유하고 알렸기에 그 활동이 전국의 여성 수도자들로 확대되었다. 전담자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에 여성 수도자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평화의 섬 천주교 연대 내의 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신청하는 여성 수도자들에게 항공료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여성 수도자들의 숙소를 알선하고 참가자들이 마을 안에서 머무르면서 강정 마을과 긴밀히 협력하고 그 활동 속에서 마을 주민들, 다양한 활동가들, 연대자들을 만나며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하였다.

앞에서 여성 수도자의 본질적 사명인 ‘예언자적 역할’로의 전환과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조직화와 시대의 요청에 따른 사회

참여 활동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여성 수도자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수도자의 예언적 역할은 국가와 사회 안에서만 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교회 안에서도 실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여성 수도자들은 교회의 요청에 긴밀하게 협력하였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가 있고 현재 또한 다수의 여성 수도자들은 본당과 교구 운영 시설에 파견되어 있다. 그렇기에 여성 수도자들은 교구와 교계제도에 너무나 긴밀히 결속되어 있고 독립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여성 수도회가 교회와 교구, 교구 시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비판, 저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다보니 수도자들은 시민사회로부터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성수도회는 교회와 교구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하고 수도회의 고유한 사도직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도회의 회원들이 개인의 카리스마를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상연합회 내 생명평화분과의 전담자를 중심으로 수도회 간 JPIC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현장에서는 다양한 수도회와 다수의 여성 수도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생명평화분과에 소속된 위원은 전체 수도회 숫자의 1/5 수준이다. 물론 여기에 가입하지 않고 전담자를 배치해 활동하는 수도회가 있긴 하지만 그 수는 미미하다고 본다. 이러한 단순 수치로 여성 수도회와 수도자의 사회참여를 판단하는 것은 각 수도회의 카리스마와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것이기에 성급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수의 여성 수도자들이 JPIC 활동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개별 수도자들의 JPIC 활동 동기와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는 무

엇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여성 수도자들의 JPIC 네트워크 강화와 조직화를 통한 활동은 장상연합회와 수도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 수도자의 개인 판단을 통한 개별 활동 보다는 활동의 지속성과 인적·물적 자원 동원 면에서는 월등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장상연합회와 수도회가 전체 식별을 통해 활동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활동은 공식적인 것이 되고 참가자들은 참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여성 수도자들은 공동체와 규칙에 묶여 있으므로 개인의 양심에 따른 판단으로 외부 활동을 하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수반되며 경우에 따라 외부 활동은 공동체나 장상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JPIC 활동의 경우 장상연합회나 수도공동체의 결정은 중요하고 개인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JPIC 활동의 저변이 확장되는 것은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수도자 개인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하기에 JPIC 활동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필요성에 대해 많은 수도회, 수도회 장상들의 공감과 필요하다. 그래서 공감과 인식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현재의 여성 수도자들의 JPIC 활동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여성 수도자들의 연대활동은 평신도나 사제들이 개척해 놓은 곳에서 미사와 기도회를 중심이 되어 대부분 이루어진다. 당연히 수도자로서 미사는 최고의 기도이고 연대 방법이긴 하지만 그 형식만을 따져보자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 미사를 중심으로 연대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본당 사도직을 그대로 현장으로 옮겨 놓은 상태로 어찌면 본당에서 하듯 사제의 보조적 역할을 JPIC 활동의 현장에 까지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비록 현장이 편안한 상황은 아니지만 여성 수도자들은 자신들이 평소에 하던 방식대로 활동 하고자 하

고 수도자라는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여성 수도자들의 JPIC 활동은 여성으로서, 수도자로서의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독자적인 활동 방법과 영역 개척이 필요하다.

한국 가톨릭교회의 사회참여 활동에 성직자와 수도자만이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평신도의 증산증화와 보수화와 연관이 있다. 교회 조사에 따르면 높은 비율의 신자들이 교회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지만 적극적 참여층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그리고 사도직 현장에서 만나는 대다수의 신자들은 사회참여에 무관심하거나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보수적 경향을 갖고 있음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자의 사회참여는 호응을 받기보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과도한 정치적 행위로 비취질 가능성이 깊다. 이러한 분위기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예언자적 역할'에 대한 거부로 나타날 수 있고 개인의 만족과 신비적인 신앙으로 치우칠 수 있다. 그렇기에 평신도 특히 예비자 교리 단계에서의 사회교리 교육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리고 기존의 평신도들에게도 사회교리의 보급을 위한 특별한 방법이 연구되어야 하며 수도회 내에도 이러한 보수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에 수도자들의 사회교리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강우일, 2012, 『강우일 주교와 함께 걷는 세상』, 바오로딸
- 강우일, 2017, 『강우일 주교와 함께 희망의 길을 걷다』, 바오로딸
- 강인철, 2008, 『종교권력과 한국천주교회』, 한신대학교출판부
- 강정마을 주민, 2011,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점과 반대투쟁의 역사적 의미』
- 강정마을회, 2017, 『제주해군기지반대 및 생명평화운동 : 중간자료집 I 2007 ~2017』
- 구림비살리기전국시민행동, 2014, 『울지마 구림비 힘내요 강정』, 나뭇박스
- 김근수, 2014, 『교황과 98시간 : 프란치스코, 한국에 공감과 정의를 선물하다』, 메디치미디어
- 김근수, 2016, 『지금, 한국의 종교: : 가톨릭·개신교·불교, 위기의 시대를 진단하다』, 메디치
- 김중서, 2016, 『종교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박문수, 2013, 『한국 종교교단 연구Ⅷ 사회복지편 : 천주교의 사회복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12, 『공의회학교 제2권』, 가톨릭출판사
- 세베리노마리아 알론소 지음, 강운자 옮김, 2007, 『수도생활 신학』, 기쁜소식
- 송재룡외, 2015, 『종교와 사회진보』, 다산출판사
- 손 맥도나지음, 이정규 옮김, 2017, 『공동의 집』, 분도출판사
- 심상태, 1994, 『한국교회 선교200주년기념 사목회의 의안 해설집』, 한국그

리스도사상연구소

- 우리사회연구학회, 1998, 『현대사회와 여성』, 정림사
- 오경환, 1997, 『교회와 국가』, 인천가톨릭대학교 출판부
- 이원규, 2006, 『인간과 종교』, 나남출판
- 이원규, 2015, 『종교사회학의 이해』, 나남
- 조안 키티스터 지음, 김영미의 옮김, 2011, 『재속의 불씨』, 성바오로
- 조현범, 2010, 『한국 종교교단 연구Ⅵ : 한국천주교의 역사와 종교적 특성』,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 종교연구소
- 존 포츠 지음, 이현주 옮김, 2010, 『카리스마의 역사』, 더숲
- 주성수, 2017, 『한국 시민사회사 민주화기 1987~2017』, 학민사
- 추교윤, 2010, 『한국의 종교와 사회운동: 천주교 사회운동의 전개와 특성』,
이학사
- 펠리시시모 마르티네스 디에스 OP 지음, 안소근 옮김, 2009, 『수도생활의
재발견』, 분도출판사
-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1, 『신자유주의 사회의 종교를 묻는다』, 청년사
- 황창희, 2015, 『사회교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나침반』, 인천가톨릭대학교출
판부
- 헤수스 알바레즈 고메스 지음, 황경희 옮김, 2004, 『역사의 도전 앞에 선
수도생활』, 생활성서
- 헤수스 알바레즈 고메스, 강운자 옮김, 2005, 『수도생활의 역사3』, 성바오
로
- A.프란츠 지음, 최석우 옮김, 2001, 『세계 교회사』, 분도출판사

2. 논문·학술지

- 강인철, 2001, “생명운동 - 천주교의 신사회운동”, 한신인문학연구2, 287-314p
- 강인철, 2002, “민주화 과정과 종교 - 1908년대 이후의 한국 종교와 정치”, 종교연구 27권, 25-57p
- 강인철, 2003, “정부보조금과 종교 : 민주화시대의 새로운 종교통제방식”, 종교문화연구 제5호,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75-119p
- 강인철, 2006, “사회참여와 갈등, 그리고 교회쇄신운동”, 우리신학 4호, 23-70p
- 김선필, 2016, 「한국천주교회 지배구조의 형성과 변형: 교회쇄신을 위한 사회학적 검토」, 제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선필, 2016, “천주교회의 관료제적 특성이 한국교회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수용에 미친 영향 : 1980년대 공인·비공인 논란을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제27호, 147-176p
- 류지아, 2010, 「종교의 가부장문화 내 여성신자들의 정체성 연구 : 가톨릭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박문수, 2015,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 수도원 운동의 변천”, 기독교사상 682호, 40-50p
- 박상필, 2012, “1990년대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7호, 23-70p
- 박정우, 2012, “새복음화의 실천원리로서 사회교리와 한국교회 현황”, 가톨릭 신학과 사상 70호, 233-77p
- 박정임, 2005, 「한국 가톨릭교회 내 수녀의 주변화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준, 2017, “종교의 공익활동과 NGO : 한국천주교회의 공익활동의 현황과 전망”, 한국NGO학회, 70-83p
- 박찬옥외, 2000, “한국 가톨릭교회 유치원의 교육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 교육 문제연구, 3-178p

- 서명옥, 201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하느님 백성’ 신학에 관한 연구”, 신학전망 187호, 136-178p
- 오세일, 2015, “한국천주교회와 사회참여 : 제2차 바티칸 공의회로 인한 성찰적 근대화”, 한국사회학 제49집 제2호, 93-123p
- 이숙자, 2003, 「한국 가톨릭 환경운동의 특성분석」, 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
- 정원범, 2015, “WCC의 에큐메니칼 운동과 치유선교”, 선교와 신학 제36호, 205-236p
- 차순향외, 1994, “한국 여자수도회의 역할”, 신학과 사상 12호, 95-136p
- 최혜영, 2005, “본당 사제와 본당 수도자”, 가톨릭 신학과 사상 54호, 69-93p
- 최혜영, 200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한국 수도생활의 변화와 쇄신” 가톨릭신학과 사상 55호, 217-249p
- 최혜영, 2013, “수도생활과 중년기 영성: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가 직면한 중년기적 위기의 특성과 서원생활”, 신학전망 182호, 106-140p

3. 기관자료

1) 교황 · 교황청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프란치스코, 2014, “봉헌 생활의 해를 맞이하여 모든 봉헌 생활자에게 보내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5, 『간추린 사회교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수도생활의 쇠신에 관한 교령, 완전한 사랑(Perfectae Caritatis)』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4, 『수도생활에 관한 교회 문헌 : 봉헌생활(Vita Consecrata)』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4, 『현대 세계의 복음 선포에 관한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5,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a Si)』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2011년, '제30회 인권주일 담화문'

한국천주교회 200주년기념 사목회의위원회, 1984, '사목회의 의안② 수도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2011, "제1회 사회교리 주간 교육 자료: 2011년 한국의 현실과 사회 교리"

천주교대구대교구, 1999, "제1차 시노드 (수도자의안)"

천주교인천교구, 2000, 『제1차 인천교구 대의원 회의(시노드) 최종문서』

천주교서울대교구, 2003, "서울대교구 시노드 후속 교구장 교서"

2) 한국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1992, "수녀님의 의견을 듣습니다."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1993, "수녀들의 사도직활동에 대한 성직자의 의식 조사"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1997, "본당 사도직 여성 수도자 실태 조사"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1999, "한국 여자수도회 성소자 및 수도자 실태 조

사”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2015, “봉헌생활의 해 기념 연구 심포지엄: 한국
여자 수도회 봉헌생활 현실과 쇄신 방향”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2000, “제33차 정기총회 결과보고 자료집”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2007, “제40차 정기총회 자료집”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2009, “제42차 정기총회 자료집”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2010, “제43차 정기총회 자료집”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2011, “제44차 정기총회 자료집”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2012, “제45차 정기총회 자료집”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2012, “제45차 정기총회 결과 보고 자료”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2013, “제46차 정기총회 자료집”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2014, “제47차 정기총회 자료집”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2016, “제49차 정기총회 자료집”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2016, “제49차 정기총회 자료집”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2016, “제49차 정기총회 결과보고 자료집”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2017, “제50차 정기총회 자료집”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공문, 2012, 장상연: 제 2012-003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공문, 2012, 장상연: 제 2012-004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공문, 2012, 장상연: 제 2012-005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공문, 2012, 장상연: 제 2012-008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공문, 2012, 장상연: 제 2012-010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공문, 2013, 장상연: 제 2013-049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공문, 2017, 장상연: 제 2017-022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공문, 2013, 생명평화: 제 2013-001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공문, 2018, 생명평화: 제 2018-01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2013년, '제1차 정기회의 회의록'
(2013년 3월 14일)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2013년, '제2차 정기회의 회의록'
(2013년 5월 9일)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2013년, '제5차 정기회의 회의록'
(2013년 11월 20일)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2017년 '반인신매매 캠페인 리플렛'
(탈리타쿰 코리아)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2018년 '반인신매매 캠페인 리플렛'
(탈리타쿰 코리아)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2018년, '운영 및 행사 보고서'

3) 가톨릭 잡지

경동현, 2014, "수도자의안이 한국 수도회에 미친 영향", 갈라진 시대의 기쁜
소식, 1054호, 32-37p

김신호, 1993, "수도 공동체-수도회 사업의 반성과 앞날의 방향", 사목 제176
호, 26-36p

박문수, 2016, "교회 중산층화, 불편한 진실", 가톨릭평론 창간호, 43-56p

이완영, 1994, "제9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배경과 의의", 사목 188호, 5-17p

잔카를로 파니 지음, 2017, 이정주 옮김, 2017, "여성과 부제직", 치밀타 카톨리
카 한국어판 제2권, 97-110

R. 쇼 지음, 엄재중 옮김, 1998, "성직주의의 위험", 사목 제228호, 132-139p

4) 기타

김영미, 2013, 『한국 천주교 여성운동,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여성수도자의 예언적 소명과 실천』, 천주교여성공동체, 57-73p

세계교회협의회(WCC), 1990,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JPIC) 서울 세계대회 문서”

이남주, 2016, “박근혜 정권의 성격과 시민사회 대응 : 수구의 “롤백(roll back) 전략과 시민사회의 대응”, 바꿈외, 1-11p

5. 인터넷 자료

1) 홈페이지

http://www.cbck.or.kr/bbs/bbs_list.asp?board_id=K7200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홈페이지, 통계자료

http://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search.asp?group=01

가톨릭대사전

http://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search.asp?group=02

가톨릭 전례사전

http://ggma1.com/bbs/board.php?bo_table=menu_8&wr_id=50

공생공빈밀알 협동조합 홈페이지, <천주교 창조보존 연대 대표 양기석 신부의 편지>, 검색 2018년 12월 31일

http://www.catholicjp.or.kr/index.php?mid=issue&category=7386&document_srl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홈페이지,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 기본 원리들>, 검색 2018년 9월 17일

http://ucatholic.or.kr/Jsource/Jboard/content.asp?ji_num=69&jb_idx=10934&jb_ref=10934&gotopage=1&folder_name=Jboard&screen_width=1280
의정부교구 홈페이지 정의평화 게시판, <사회교리 4대 원리와 참여>, 검색 2018년 9월 17일

http://www.cbck.or.kr/page/committee_view.asp?p_code=k2520&idx=200131
주교회의 홈페이지 정의평화위원회, <전국위원회 주요활동>, 검색 2018년 12월 31일

http://www.diocesejeju.or.kr/board_diocese/26559
제주교구홈페이지 2007년 5월 7일 게시물, <[교구장 담화문] '평화의 섬 제주를 염원하며' (해군기지 계획과 관련하여)>, 검색 2018년 12월 19일

<http://www.jeju.go.kr/jeju/peace/summary/mean.htm>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평화의 섬 지정 개요>, 검색 2018년 7월 28일

<http://www.nuns.or.kr/>
한국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홈페이지, <한국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기구 조직표>, 검색 2018년 11월 12일

http://www.cbck.or.kr/page/page.asp?p_code=K331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홈페이지 게시판, <수도생활에 대하여>, 검색 2018년
11월 10일

<http://www.kaif.or.kr/?c=nws&s=5>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홈페이지, <국내원전 현황>, 검색 2018년 7월 27

2) 기사 (기사 날짜 순)

(1) 가톨릭교회 신문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147045¶ms=page%3D2%26acid%3D687

가톨릭신문 2004년 7월 4일 기사, <[이 땅에 빛을] 200주년 사목회의를 재조명한다(8)>, 검색 2018년 7월 3일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160093

가톨릭신문 2007년 5월 27일 기사 <제주교구 성모의 밤>, 검색 2018년 12월
19일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160072

가톨릭신문 2007년 5월 27일 기사 <"제주 해군기지 유치 철회하라">, 검색
2018년 12월 19일

http://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160687

가톨릭신문 2007년 7월 8일 기사, <한국교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검색
2018년 8월 11일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160695

가톨릭신문 2007년 7월 8일 기사 <[사설] 제주 참 평화 위한 연대를 촉구한
다>, 검색 2018년 12월 19일

http://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230297

가톨릭신문 2011년 9월 11일 기사, <세계총장연합회 한일대륙별 모임·정기 총
회: 핵 문제 해결 구체적 방안 논의>, 검색 2018년 7월 26일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42>

가톨릭지금여기 2011년 10월 14일 기사 <제주의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그리스
도인의 양심[강우일 제주교구장 기고문]>, 검색 2018년 12월 19일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230895

가톨릭신문 2011년 10월 16일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 연대’ 출
범 총회> 2018년 12월 19일 검색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267972

가톨릭신문 2015년 5월 17일 기사, <현대의 봉헌생활 (5) 한국의 수도회>, 검
색 2018년 10월 14일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268839¶ms=page%
3D1%26acid%3D746](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268839¶ms=page%3D1%26acid%3D746)

가톨릭신문 2015년 7월 12일, <[현대의 봉헌생활](7) 수도회 고유 카리스마>,
검색 2018년 12월 20일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1>

가톨릭뉴스지금여기 2015년 10월 5일 기사 <교회 내 시민사회 영역 넓혀야>, 최종검색 2018년 6월 30일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696070&path=201709

평화신문 2017년 9월 24일 기사, <장상연 생명분과 탈리타쿰위원회 반 인신매매 캠페인 펼쳐>, 검색 2018년 7월 8일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48>

가톨릭뉴스지금여기 2017년 12월 15일 기사, <사회교리 교육, 어디까지 왔나>, 검색 2018년 11월 1일

<http://www.catholicworker.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

가톨릭프레스 2018년 4월 10일 기사, <제주 4.3 70주년 기념 미사 강우일 주교 강론>, 검색 2018년 10월 9일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3>

가톨릭지금여기 2018년 6월 29일 기사, <‘야전병원’, 교회 사명의 새로운 출발>, 검색 2018년 12월 20일

[http://www.catholicpress.kr/news/view.php?idx=5121&sm=w_total&stx=탈리타쿰
&stx2=&w_section1=&sdate=&edate=](http://www.catholicpress.kr/news/view.php?idx=5121&sm=w_total&stx=탈리타쿰&stx2=&w_section1=&sdate=&edate=)

가톨릭프레스 2018년 7월 3일 기사, <인신매매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검색 2018년 7월 26일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0>

가톨릭뉴스지금여기 2018년 9월 7일 기사, <여성과 대화해야 성직자주의 극복
된다>, 검색 2018년 10월 23일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48>

가톨릭뉴스지금여기, 2018년 11월 9일 기사, <여장연, 동북아 평화 위한 활동
다짐>, 검색 2018년 11월 9일

(2) 기타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0607100010>

월간조선 2006년 7월호, <가톨릭 교세폭발의 비밀>, 검색 2018년 10월 29일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31620>

제주소리신문 2007년 5월 21일 기사 <강우일 주교, 노대통령에 '공개서한'>,
검색 2018년 10월 9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302161517271

경향신문 2013년 2월 16일 기사, <박근혜 정부, 시민사회 소통 비전 없다>,
검색 2018년 9월 25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85264.html>

한겨레신문 2013년 4월 30일 기사, <생명신학 싹틔운 ‘서울 JPIC 세계회의’>, 검색 2018년 7월 27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142209225&code

경향신문 2014년 8월 14일 기사, <특집 교황방한>, 검색 2017년 7월 24일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8069>

아이 굿뉴스 기독교연합신문 2018년 10월 25일 기사, <가톨릭과 개신교, 통계로 보는 세상>, 검색 2018년 11월 8일

Social involvement by Korean Catholic Women Religious :
Focusing on The activities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Gangjeong naval base in Jeju

Kim Ju Hyun

Department of NGO Studies

Graduate School of NGO Studies

For the recent 10 years, the Korean Catholic Church has actively promoted progressive social involvement activities similar to the period of democratization movement before the uprising in June 1987. This period was especially prominent in the social involvement activities of women religious, along with the priests. This is because the lay groups that have been progressive since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have becom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laymen have left the civil activist group and their activities have been sluggish recently. On the other hand, it was due to the change of the women religious congregations and their members, supported by 'The Association of Major Superiors of Women Religious in Korean(below 'Association of Major Superiors')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transition of Korean Catholic women religious from the existing function to the

'prophet role' and the background of 'expansion of JPIC (Justice· Peace · Integrity of Creation) activities' or 'expansion of social involvement'.

First, their transition to the 'prophet role' helped them recognize their essential mission : the prophetic role. and the various backgrounds and motives that influenced this change of perception were as follows. The Catholic Church has emphasized its social role and responsibilities since the Second Vatican Council and provided religious values and norms for social participation through social teachings. In particular, the Korean Catholic Church has committed itself to popularizing social teachings through the translation of social teachings, the establishment of social doctrine week, and the establishment of social teachings schools in each diocese.

The prophetic role of a charismatic spiritual leader creates great repercussions in society as well as in the church. In particular, Pope Francis and Bishop Kang Woo-il promoted social involvement of Korean Catholic Church and women religious through their social remarks and participation. Pope Francis's special concern to the incident of the sunken Ferry Sewall and the bereaved families during his visit to Korea made great impression on the Korean people.

And Bishop Kang Woo-il, the Ordinary of the diocese of Jeju, has been in solidarity with the local residents in the activities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Gangjeong naval base there. He made every effort to make known the pain of Jeju 4.3 unfairness of naval base construction in many ways.

As the JPIC World Congress was held in Seoul in 1990, the ecumenical christian social movement, JPIC, became known to the Catholic Church. This congress helped the existing justice and peace movement in the Catholic Church make a paradigm shift to 'justice, peace and ecology' by adding the value of environment. However, the JPIC movement has only recently been activated as women religious started to take part in social activities.

Since the mid-1980s, the Korean Catholic Church has increased its appeal and social credibility in society due to the influence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number of new Catholics has increased rapidly and the church has expanded. The number of women who joined the religious communities increased sharply during this period and many of them were sent out to meet the demands of the church and society. Recently, however, the number of women who are interested in religious life has diminished sharply and many of the members are aging, which leads a crisis to the religious communities.

The Korean women religious congregations have sent out their members at the request of the Church at the time of the expansion of the Church, and they have played a role of middle administrators or assistants of priests, placed in between priests and laypersons. However, the number of priests increased and the laypersons grew in their capacity in the Church, blurring the position and role of women religious. As a result, has emerged a need for adjusting their role in the church. On the other hand,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church is getting stronger, which also makes the church's unequal culture stronger and the

role and place of the women religious is getting narrower. Accordingly a lot of issues were raised about women religious, and Association of Major Superiors and each religious congregation strated to reevaluate the existing ministries through the works of renewal and discernment and to develop other ministries that needed the service of women religious and helped them actualize their charism.

With the awareness of their prophetic role, the women religious could realize that the ministry of this time in Korea was social involvement, that is, JPIC activities. For about 10 years since 2008, a series of serious political and social problems has emerged in Korean society, causing the civil activists to raise social issues and the government to intensify oppression and violence. The expansion of JPIC activities of women religious was made mainly by 'the Life and Peace office' of Association of Major Superiors, which was the result of strengthening network among women religious and organization of JPIC in each congregation.

As various social problems emerged in this period, needs for solidarity increased rapidly in the religious communities, especially in the Association of Major Superiors, and a sister was assigned to the 'Life and Peace office' in 2013 in order to meet the needs. This committed sister was in solidarity with social activist groups within the Catholic Church and jointly responded to the social problems. They created networks among religious congregations to respond quickly to urgent needs and shared information smoothly. According to the 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Association of Major Superiors, each

religious community selected JPIC coordinator, formed and activated JPIC meetings, which also helped to facilitate the social involvement of women religious.

Especially the activities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Gangjeong in Jeju are the result of this network and JPIC committees in each religious congregation. 'The Life and Peace office' has recruited and sent women religious who volunteered to join, and supported the air expenses so that they could stay in Gangjeong village. And the program was designed to help women religious stay in the village and collaborate with the Catholic team there

Key words : Prophet Role, Social involvement, JPIC, Pope Francis, Bishop Kang Woo-il, 'Life and Peace office', and The activities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Gangjeong naval base in Jeju